

주돈이 신화 형성과 주희의 역할

— 도학 도통론에서 주돈이와 「태극도·설」의 부각

李大承^{*}

- | | |
|-------------------------|------------|
| I. 서론 | IV. 주희의 종합 |
| II. 호상학파의 주돈이 추존 | V. 결론 |
| III. 도서학 전통에서 「태극도」의 부각 | |

• 국문초록

일반적으로 주돈이는 공맹의 도통을 잇고 유가의 우주론을 담은 「태극도」(도설 포함)를 지어 도학을 처음 창도한 ‘도학종주’로서, 그의 도는 이정 형제 그리고 주희로 전해졌다고 알려져 있다. 하지만 근래에는 주돈이의 도가 정이에게 전해졌다는 ‘주정수수론’과, 그들의 도가 이후 주희에게 전해졌다는 도학의 도통론은 주희에 의해 만들어진 일종의 신화로서, 도학의 실질적 창시자는 정이라는 시각이 인정되고 있다. 그렇다면 과연 주돈이와 그의 「태극도」는 주희 이전에 어떤 위상을 지니고 있었고, 또 도통론은 어떻게 구축되어 갔는가?

본고는 도학의 ‘주정수수론’ 혹은 도통론 연구의 일환으로서, 남송 시기에 도학자로서의 주돈이 이미지가 구축되고, 그의 「태극도」의 위상이 정립되어 가는 과정을 고찰하였다.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주돈이를 공맹 도통의 계승자로 여기고, 그가 이정에게 도를 전했다는 주정수수의 시각은 주희에 앞서 호상학파의 호굉에 의해 제시되었다. 하지만 호상학파에서 중시한 문헌은 「태극도」가 아닌 『통서』였다. 주돈이의 「태극도」는 남송 도서학 전통에서부터 『통서』에서 독립되어, 역학적 우주론을 서술한 독자적인 문헌이자, 주돈이가 이

* 전주대학교 한국고전학연구소 HK+연구교수

정에게 전수한 문헌으로 부각되었다. 주희는 주돈이 문헌을 편정하고 장사본(1166), 건안본(1169), 그리고 남강본(1179)을 간행하는 과정에서 호상학과와 도서학 전통의 논의를 종합하였다. 또 그 과정에서 「태극도」를 주돈이 사유의 핵심으로 선창하고, 「태극도」를 통해 주돈이와 이정 형제간의 도통을 구축하며, 고원한 도학자로서 주돈이 이미지를 부각시켰다. 이를 통해 도학 전통 측면에서 주돈이는 도학의 종주로 자리매김 되고, 그의 「태극도」는 도학의 핵심을 밝힌 문헌으로 정립되었다. 그리고 주희의 시각은 원대 이후 역사전통에서 도학의 정통적인 시각으로 공인되었다.

주제어 : 주돈이, 주희, 도통론, 태극도, 호상학, 도서학

I. 서론

중국 사상사에서 주돈이(1017~1073)는 도학의 개창자로 널리 알려져 있다. 잘 알려져 있듯이 그가 도학의 개창자로 여겨진 데에는 주희의 역할이 크다. 주희(1130~1200)는 「태극도」·「태극도설」(이하 함께 지칭할 때는 「태극도·설」로 표기)을 정밀하게 탐구하여 이를 도학의 도체를 담은 문헌으로 여기고 주돈이를 도학의 개창자로 추존했다. 송말 원초 주자학이 관학으로 자리한 후 주돈이와 그의 「태극도·설」에 대한 주희의 시각은 정론이 된다. 원대에 만들어진 『송사』, 「도학전」의 내용은 주희의 시각이 정론으로 인정되었음을 반영한다.¹⁾ 이러한 시각은 또 조선에도 그대로 수용되어 이황은 『성학십도』에서 주돈이의 「태극도·설」을 성학의 첫 번째로 제시하고, 이이는 『성학집요』에서 주돈이를 성학을 이은 도통의 계승자로 자리매김한다.²⁾ 그리고 현재까지도 주돈이에게는 공맹의 도통을 잇고 유가의 우주론을 담은 「태극도·설」을 지어 도학을 처음 창도한 ‘道學宗主’로서의 이미지가 구축되어 있다.³⁾

주희의 주장은 남송부터 근래에 이르기까지 정론으로 여겨져 왔다. 하지만 이에 대해 주희 당대부터 현대에 이르기까지 많은 연구자에 의해 지속적으로 의문이 제기되어 왔다. 의문의 핵심은 송대 사료를 검토할 때 주돈이는 실질적으로 도학의 개창자로 보기 어렵고 그가 정이(1033~1107)에게 도를 전했다는 ‘주정수수’는 사실이라고 보기 어렵다는 것이다. 특히 근래에 ‘주정수수론’은 주희에 의해 만들어진 신화에 불과하다는 주장이 강하게 제기되었다.⁴⁾ 이러한 연구는, 주돈이가 북송 때에는 널리

1) 『송사』, 「도학전」에서는 맹자 이후 끊어진 도가 북송 주돈이에게서 비로소 전승되고, 주돈이로부터 장재, 정명도, 정이천, 주희에게 전해진다고 말하고 있다. 『宋史』 卷427, 「列傳 第168·道學 1」 참조.

2) 퇴계는 주희의 시각을 이어받아 『성학십도』에서 「태극도설」을 가장 먼저 논하면서 주돈이를 도학의 계승자로 상찬하였고, 율곡 역시 『성학집요』의 결론이라 할 수 있는 ‘성현도통’에서 공맹의 도를 주돈이가 계승하고 이 도가 주희에게 이어진다고 보고 있다. 율곡 역시 맹자의 도통을 周子가 계승했다고 본다. 율곡의 도통론과 관련한 사항은 임흥태, 「율곡 이이의 도통론과 도통의식」 『성학집요』의 「성학도통」을 중심으로, 『한국철학논집』 18, 한국철학사연구회, 2006; 김인규, 「『성학집요』에 나타난 율곡 이이의 도통관」, 『율곡학연구』 39, (사)율곡학회, 2019 참조.

3) 이러한 시각을 보여주는 대표적 연구자로 진래, 양주재 등을 들 수 있다. 진래 저, 이종란 외 역, 『주희의 철학』, 예문서원, 2002; 楊柱才, 『道學宗主-周敦頤哲學思想研究』, 人民出版社, 2005.

알려지지 않았다가 남송 주희에 의해 이정 형제에게 도를 전한 도학의 개창자로 표창되었음을 보여준다. 이 같은 시각은 남송 당시의 역사적 맥락을 반영한 것으로 차츰 인정되고 있다.

이러한 시각과 함께 최근에는 주돈이가 주희에 의해 도학의 개창자로서 추존되기 이전에 이미 호상학파에 의해 부각되고 있었다는 연구가 제시되었다.⁵⁾ 이에 따르면, 주돈이는 湖南 道州 출신으로서 호남에서 관직 생활을 하면서 교육활동을 왕성히 했기에 그는 호남의 지식인들에게 큰 영향을 끼쳤다. 특히 호남의 호상학파는 주돈이 문헌의 전승과 유행 과정에 큰 역할을 하며 주돈이를 도학 운동의 개창자로 여겼다.⁶⁾ 이러한 연구는 주희에 의해 주돈이가 도학의 개창자로 자리매김 되기 이전의, 도학 전통에서의 주돈이 위상을 보여준다는 점에서 중요하다. 하지만 여기에는 주정수수 혹은 도통의 계승과 관련한 중요한 논의가 빠져 있다. 그것은 바로 「태극도·설」에 대한 사항이다.

주돈이의 『통서』는 주희 이전에 이미 호상학파의 호안국과 호굉에 의해 중시되었다. 이때 「태극도·설」은 『통서』 권말의 부록 혹은 말장의 형태로 전해질 뿐 그 자체는 그다지 부각되지 않았다. 그런데 남송 말에 주돈이가 도학의 개창자로 여겨지게 된 가장 핵심적인 이유는 그가 「태극도·설」을 지었다는 점이다. 주희는 「태극

4) 그레이엄에 따르면, 이미 주희 당시 汪應辰으로부터, 明代 王道, 명말청초 朱彝尊, 그리고 현대에 錢穆, 管道中, 姚名達 등이 이정이 주돈이에게 도를 전해 받았다는 것에 의문을 제기했다. 그레이엄 역시 이 입장에 서 있다. 현대에 ‘주정수수’에 대해 강한 의문을 제기하면서 이는 주희에 의해 만들어진 신화라고 말한 대표적인 학자는 쓰치다 겐지로다. A. C. 그레이엄 저, 이현선 역, 『정명도와 정이천의 철학』, 심산, 2011, 291~293면; 쓰치다 겐지로 저, 성현창 역, 『북송도학사』, 예문서원, 2006.

5) 호남에서 주돈이의 활동, 호상문화에 끼친 주돈이의 영향, 주돈이와 호상학파의 관계, 주돈이 추존과 그의 문헌 전승 등 주돈이와 호상학파와의 관련 내용은 다음의 연구 참조. 肖永明·申蔚竹, 「南宋湖湘學派對周敦頤的推崇及其思想動因」, 『湖南社會科學』 2016(02), 湖南省社會科學界聯合會, 2016; 周建剛, 「周敦頤與湘學」, 『湖南科技學院學報』 2014(09), 湖南科技學院, 2014; 周建剛, 「張栻對周敦頤之學的繼承與發展」, 『求索』 2016(11), 湖南省社會科學院, 2016; 易永卿, 「周敦頤對湖湘文化和湖南人才的影響」, 『湖南師範大學社會科學學報』 2016(06), 湖南師範大學, 2016; 소현성, 「주돈이 저작의 간행과 권위의 형성에 대한 문헌 해석학적 연구」, 『동양철학연구』 46, 동양철학연구회, 2006; Adler, Joseph A, *Reconstructing the Confucian Dao Zhu Xi's Appropriation of Zhou Dunyi*, Albany SUNY Press, 2014.

6) A. C. 그레이엄, 앞의 2011 책, 301~302면 참조.

도·설」을 주돈이 사상의 핵심으로서 도체의 핵심을 담은 문헌으로 여기고 또 그 도상과 도설이 이정 형제에게 전승되었다고 여긴다. 호상학파의 장식이 「태극도설」을 중시하고 『태극도설해』(『태극해의』라고도 칭함)를 짓게 된 계기는 바로 주희가 「태극도·설」을 중시하고 이에 대한 해설서인 『태극해의』를 지었기 때문이다. 주희에 의해 제시된 ‘주정수수’의 핵심은 바로 「태극도·설」의 전수 여부이다.⁷⁾

주돈이의 「태극도·설」은 도상의 원류 논쟁에서부터 도설 첫 구절 “무극이태극”에 대한 논쟁 등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사안이 주희 당대부터 현대까지 끊임없이 쟁론되어 왔다. 쟁론의 장에서는 문헌학적 문제에서부터 철학적 해석 문제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층차의 논의가 이루어졌다.⁸⁾ 하지만 대다수 논의는 주희에 의해 「태극도·설」이 도통의 핵심문헌으로 부각된 이후의 사안에 대한 것이다. 또 주희에 의해 「태극도·설」이 부각되기 이전의 사안과 관련된 것은 朱震(1072~1138)과 祁寬(자는 居之)의 기록에 보이는 「태극도·설」의 전승 관계에 대한 내용뿐이다.

주희 이전의 주돈이 문헌 전승과 그의 위상에 대한 내용은 선행연구에서 탐구되었다. 그러나 「태극도·설」의 위상에 대한 사안은 거의 탐구되지 않았다. 나아가 「태극도·설」의 형태 혹은 문헌 정립과 관련된 주희의 역할에 대한 구체적 논의 역시 선명하게 다루어지지 않았다.

본 글은 도학의 도통론 혹은 주정수수론과 관련된 남송 지성사 연구의 일환으로, 남송 시기에 주돈이가 공맹의 도통을 이은 도학자로 부각되고 「태극도·설」이 도학의 주요 문헌으로 정립되는 과정을 고찰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주희 이전에 주돈이와 그의 「태극도·설」의 위상을 살피고, 이후 주돈이와 그의 「태극도·설」의 위상이 주희에 의해 어떻게 정립되어 가는지를 살핀다.

7) 주희는 「태극도·설」을 주돈이 사상의 핵심으로 보며 『통서』는 「태극도·설」을 연역하여 해설한 것으로 여긴다. 그래서 주희는 주돈이를 孔孟의 도통을 이은 인물로 주창하고, 그의 「태극도·설」을 도학의 근본을 밝힌 글로 여기며 이를 『근사록』 첫 머리에 배치하였다. 주희에게 주돈이의 저술은 도학의 도체를 밝힌 문헌이기에 여러 차례에 걸쳐 교정·판각하여 다른 학자들과 논의하고 자신의 연구를 덧붙여 주해작업까지 하였다.

8) 「태극도·설」과 관련된 역대의 논의 주제와 관련하여 鄭吉雄, 『易圖象與易詮釋』, 華東師範大學出版社, 2008, 175~182면 참조.

II. 호상학파의 주돈이 추존

남송 효종(재위, 1162~1189) 때 인물인 李元綱(자 國紀, 호 百鍊眞隱)에 의해 乾道 6년(1170)에 저술된 『성문사업도』는 「傳道正統」, 「大本達道」, 「進修倫類」…… 「心性本體」 등 10여 폭의 그림과 함께 유학의 주요 내용을 수록하고 있다.⁹⁾ 이 때는 주희의 ‘中和新說’이 확립되던 건도 5년(1169, 40세) 다음 해로, 주희가 주돈이 문헌을 탐구해 가던 시기이다. 『성문사업도』에서는 첫 번째 「전도정통」에서 도통의 전수 계보를 제시하고 있다. 이 계보에서는 요-순-우-탕-문-무-주공-공자에서 증자-자사-맹자를 거쳐 정명도, 정이천 형제로 이어지는 도통의 전수도를 제시하고 있는데, 여기서 주돈이는 거론되지 않는다.¹⁰⁾ 이는 진영첩의 말처럼,¹¹⁾ 당시 문인들이 요순에서 공맹으로 이어진 유학의 도통이 맹자에서 끊어졌다가 이정에 의해 다시 이어졌다고 인식하고 있었음을 보여준다.¹²⁾

주돈이 문헌을 살펴보면, 사실상 그는 공맹의 유학 자체만이 아닌 불교와 도교에도 관심을 두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¹³⁾ 주지하다시피, 주돈이는 북송 당시에는 널리

9) 『聖門事業圖』는 이원강 서문의 “乾道庚寅百鍊眞隱李元綱國紀序”를 통해 건도 6년(1170)에 저술되었음을 알 수 있다. 『성문사업도』는 『사고전서』 수록본.

10) 「부록」의 『성문사업도』, 「傳道正統」 참조.

11) 진영첩은 주자 당시의 도통에 대한 내용은 요순에게서 공맹으로 전수되고, 중간에 끊어졌다가, 이정에 의해 다시 흥한다고 여기는 것이 당시 정론이었다고 말한다. 다만 당시 도통 관념은 있었지만 ‘道統’이라는 용어는 아직 쓰이지 않았으며, ‘도통’ 용어는 주희에 의해 비로소 사용된다. 진영첩은 주희의 도통관이 “도통 용어 사용, 철학적으로 해설, 요순에서 복희에까지 소급, 주돈이를 중간에 추가, 그리고 도통을 주희 자신이 계승” 등 5가지가 이전과 다른 새로운 점이라고 말한다. 陳榮捷, 『朱子新探索』, 華東師範大學出版社, 2007, 287~291면 참조.

12) 정이는 「명도선생묘표」에서 정호가 맹자 이후 전해지지 않은 도를 계승했다고 말했다. 이정의 문인들은 이정 형제가 맹자의 도통을 계승했다고 여기는데, 이는 맹자의 정통을 정호가 이어받았다는 정이의 시각을 계승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레이엄에 따르면, 이정과 장재의 가르침이 주돈이에게 비롯된다는 견해는 12세기 중반까지는 발견되지 않는다. 이정이 공맹의 도를 이었다는 견해는 1132년 호안국의 상소문에서 발견되며, 또 이정과 장재가 맹자의 가르침을 이었다는 주장은 이정 제자들에게 의해 반복적으로 이루어진다. 하지만 그러한 도통의 계승 과정에서 주돈이는 언급되지 않는다. A. C. 그레이엄, 앞의 2011 책, 284~288면 참조.

13) 주돈이가 불교와 도교에도 관심을 가졌다는 것은 널리 알려져 있다. 김병환의 연구는 그러한 내용을 구체적으로 보여준다. 김병환, 「주돈이의 삶과 사상에 미친 불교와 도가, 도교의 영향 연구」, 『중국학보』 60, 한국중국학회, 2009.

알려지지 않았고, 그의 저술 역시 친구 반흥사에 의해 쓰인 묘비명에서만 발견될 정도로 알려지지 않았다. 또 주돈이가 ‘안자호학론’을 통해 이정 형제를 과거 공부가 아닌 성학 공부로 인도했기에 이들은 사제 관계로 인식되지만, 주돈이와 이정 형제가 실제 사제 관계인가의 여부는 쉽사리 결론짓기 어려운 사안이다.¹⁴⁾

주돈이가 송대 지식인들에게 알려지기 시작한 것은 남송 시기에 들어서이다. 그는 남송 紹興(1131~1162) 연간에 이르러 유학자들에 의해 관심을 받기 시작했는데,¹⁵⁾ 특히 侯仲良, 尹焞(1071~1142), 주진, 胡安國(1074~1138) 등 이정 문하의 문인들에게 주목받았다.

윤돈의 문인인 기관은 1144년 정월에 『통서』를 간행하고,¹⁶⁾ 『通書後跋』에 『통서』의 전승 계보와 필사본의 차이, 그리고 ‘통서’의 의미 등에 대해 기술했다. 그의 『通書後跋』을 분석해보면,¹⁷⁾ 기관은 당시 세 가지 계통을 통해 전수되던 『통서』 필사본을 얻었음을 알 수 있다. 첫째는 ‘후중량-고원거-주진’ 계통, 둘째는 ‘정아-윤돈’ 계통, 셋째는 九江 주돈이 家의 舊本(이하 ‘九江古家本’) 계통이다. 이에 따르면, 당시 주돈이 고가에는 「태극도」가 없는 『통서』가 전승되고 있었고,¹⁸⁾ 후중량, 윤돈, 주진 등

14) 이정 형제는 주돈이와 그의 문헌에 대해 별다른 말이 없다. 정호는 주돈이를 좋게 보았지만, 실질적으로 도학을 열었다고 인정되는 정이는 주돈이에 대해 우호적으로 평가하지 않는다. 주돈이가 이정을 사사했는가에 대한 사안은 학자들마다 견해가 분분하다. 이와 관련하여 楊柱才, 앞의 2005 책, 「附錄一, 二程師事周敦頤考論」 참조.

15) 楊柱才, 『道學宗主-周敦頤哲學思想研究』, 人民出版社, 2005, 335면.

16) 「通書後跋」, “紹興甲子春正月, 武當祁寬謹題.” 참고로 1144년은 주진이 『한상역전』을 완성(1134년)하고 10년이 지난 시점이다. 『周敦頤集』, 中華書局, 2017(이하 『周敦頤集』로 약칭), 119면.

17) 상동, “通書即其所著也, 始出於程門侯師聖, 傳之荊門高元舉朱子發, 寬初得之於高, 後得之於朱. 又後得和靖尹先生所藏, 亦云得之程氏, 今之傳者是也. 逮卜居九江, 得舊本於其家, 比前所見, 無太極圖. 或云圖乃手授二程, 故程本附之卷末也. 校正舛錯三十有六字, 疑則闕之. 夫老氏著道德五千言, 世稱微妙. 此書字不滿三千, 道德性命禮樂刑政, 悉舉其要. 而又名之以通, 其示人至矣. 學者宜盡心焉.”

18) 대개 구강고가본 『통서』에 「태극도」가 없다는 말은 도설 역시 없다는 말로 이해된다. 주진의 『한상역전』에서 ‘태극도’라 말하고서 도설 전문까지 수록하고 있기에 ‘태극도’에는 ‘도설’이 포함된 것으로 여겨졌다. 이에 따라 그림과 도설은 하나로서 존재한다는 시각이 생겼고, 구강고가본 역시 그림과 도설이 모두 없는 것으로 이해되었다. 하지만 그림과 도설이 항상 하나의 문헌으로 존재했다고 말하기는 어렵다. 구강고가본 『통서』는 「태극도」 그림과 무관하게 도설이 있는 것과 없는 판본이 존재하며, 기관이 말한 구강고가본이 도상만 없는 것인지, 도상과 도설 모두 없는 것인지 단정하기 어렵다. 「태극도」와 「태극도설」 관계에 대해 田智忠・王宏海, 「《太極圖》與《太極圖說》

정이 문인을 통해서 「태극도」가 권말 부록처럼 덧붙여진 『통서』가 전승되고 있었다.¹⁹⁾

『통서』는 이정 문인들에게 전해지고 있었는데, 특히 그의 학문에 관심을 기울이고 그를 추존한 이들은 호남의 호상학파에 의해서이다. 주지하다시피 주돈이는 호남 道州 출신으로 호남에서 관직 생활을 했는데, 관직 생활 중에 관학과 사학 두 방면으로 적극적인 교육활동을 폈다. 이 때문에 주돈이 사후에 호남을 기반으로 한 호상학파에서 주돈이를 추존한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라 할 수 있다.²⁰⁾ 남송 도학 집단에서 주돈이가 부각된 데에는 이들 호상학파의 영향이 컸다.

주돈이는 호상학파의 개창자인 호안국에서부터 이미 주목받았다. 다만 호안국은 도학 상에서 주돈이를 이정, 소옹, 장재와 같은 지위로까지 올리지는 않았다. 호상학파에서 주돈이를 본격적으로 추존하기 시작한 것은 胡宏(1102~1161)에 의해서이다.

호굉의 주돈이에 대한 추존은 그가 주돈이의 『통서』를 정리하여 간행하면서 남긴 「通書序略」을 통해 알 수 있다.²¹⁾ 「통서서략」에서 호굉은 「태극도」가 진단-충방-목수로부터 전수되었다는 주진의 설을 인정하지만, 이들은 주돈이의 여러 스승 가운데 하나일 뿐으로서 주돈이 사상에 지대한 영향을 준 것은 아님을 강조한다. 호굉은 사람들이 伊尹이 세운 뜻과 顏回가 닦은 학문을 진정으로 안 연후에야 『통서』가

之關係再考察」, 『周易研究』, 中國周易學會, 2010(02) 참조.

19) 「通書後跋」을 참조하면, 세 계통 가운데 첫째와 둘째는 이정 문하에서 전해내려 오던 필사본으로 모두 「태극도」가 권말에 덧붙여져 있는 반면, 기관이 얻은 '구강고가본' 『통서』는 「태극도」가 없다. 그리고 『통서』의 저본으로 삼은 것은 바로 '정이-윤돈' 계통의 필사본으로서, 기관은 다른 필사본을 대조본으로 삼아 저본에서 36자는 교정하고 미심적은 것은 그대로 두었다. 『통서』의 내용과 의미에 대하여 기관은 이 책이 3천자도 되지 않지만 道德, 性命, 禮樂, 刑政 등 유가에서 핵심으로 여기는 사유를 모두 담고 있다고 보고, 그러한 의미에서 '통'이라는 이름이 붙여졌다고 여긴다. 『周敦頤集』, 「通書後跋」 참조.

20) 호남지역에서 주돈이의 활동은 朱漢民 저, 朴英順 역, 鄭萬祚 감수, 『湖湘學派와 嶽麓書院』, 學古房, 2011, 48~62면 참조. 한편 안동섭은 남송 시기에 설립된 주돈이 사당에 대해 상세히 탐구한 바 있다. 그의 연구에서는 주돈이의 출생지인 호남의 道州와 사망지인 강서의 江州, 두 지방이 주돈이의 진정한 고향으로 인정받기 위해 경쟁했던 상황을 보여주는데, 이는 주돈이에 대한 연구와 추존이 지역학의 일환으로 호남과 강서에서 주로 행해졌음을 알려준다. Thomas Dongsob Ahn, *The way and the glory-a study of Zhou Dunyi shrines in the southern song (1127~1279)*, University of Oxford, 2019, 175~223면.

21) 「通書序略」의 내용을 보면 호굉이 『통서』를 정리하여 간행할 때 이 글을 작성했음을 알 수 있다. 『周敦頤集』, 118면, 「通書序略」, “是以敍而藏之, 遇天下善士, 又尙論前修, 而欲讀其書者, 則傳焉.”

포괄하는 바가 지극이 크고 聖門의 사업이 무궁함을 알 수 있다면서 주돈이의 사유를 추켜세우고, 나아가 『통서』를 『시』, 『서』, 『역』, 『춘추』, 『논어』, 『맹자』와 같은 경서의 반열로까지 추켜세운다.²²⁾ 더 나아가 주돈이가 정씨 형제에게 맹자이래 ‘전해지지 않은 오묘함[不傳之妙]’을 열어주어 하늘에 걸린 태양과 같이 만고의 광명을 돌이켰기에 ‘孔孟之間’과 같은 공덕을 지닌다며 주돈이를 극도로 추존한다.²³⁾

널리 알려졌듯이 이정 형제는 주돈이를 통해 안자가 즐거워 한 것을 알았지만, 도학의 핵심으로 여겨지는 천리에 대한 내용은 이정 자신들의 자득이다. 특히 정이는 주돈이를 선승과 같다고 비판하기도 하였다. 주돈이와 이정의 관계를 사승 관계로 볼 수 있는지는 여전히 논쟁 중인 사안이다.

하지만 호굉은 주돈이가 이정 형제에게 맹자이래 전해지지 않았던 오묘함을 전하여 그 관계가 공자와 맹자의 관계와 같다고 본다. 이는 주돈이와 이정의 사승관계 즉 ‘주정수수’를 강조한 것이자, 이원강의 『성문사업도』에 보이는 것과 같이 도통이 맹자에서 이정 형제로 전해졌다는 당시의 도통론에 주돈이를 첨가한 것이다. 즉 호굉은 도통론 상에서 주돈이와 이정 형제의 수수 관계를 확립하였다. 그의 발언은 “유학의 도통 속에 주돈이를 들여 놓고 그 도통 전승 계보의 지위를 확립하려는 시도”이자²⁴⁾, 주돈이에게 ‘道學宗主’의 이미지 주조의 여정을 열게 한 것이라 할만하다.²⁵⁾

호굉의 언설은 당대 호상학파의 영향력을 고려할 때 도학 전통에서 주돈이의 지위와 권위를 향상하는 데 상당한 영향을 끼쳤을 것이다.²⁶⁾ 더불어 그의 『통서』 간행은 이 책의 보급에 큰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보인다. 주희에 따르면, 호굉이 간행한 『통서』는 장의 차례를 일부 바꾸고 장의 제목을 없애며 각 장 앞에 “주자가 말하길[周子曰]”이라고 기록하는 등 원래 『통서』 체재를 바꿨다.²⁷⁾ 주희는 주돈이 문헌을 처음 편정

22) 『周敦頤集』, 117~118면 참조.

23) 「通書序略」, “道學之士皆謂程顥氏續孟子不傳之學, 則周子豈特爲種穆之學而止者哉? …… 今周子啟程氏兄弟以不傳之學, 一回萬古之光明, 如日麗天, 將爲百世之利澤. 如水行地, 其功蓋在孔孟之間矣.”

24) 肖永明·申蔚竹, 「南宋湖湘學派對周敦頤的推崇及其思想動因」, 『湖南社會科學』 2016(02), 湖南省社會科學界聯合會, 2016, 165면.

25) 肖永明·申蔚竹, 앞의 2016 논문, 166면.

26) 소현성은 호굉의 말은 주돈이와 그의 저서에 대한 최고의 평가로서, 이후 주돈이 지위와 권위 형성에 큰 영향을 끼친 발언이라고 말한다. 그리고 주돈이에 대한 도학 내부의 역사적 평가는 바로 호굉에 의해 자리매김 되었다고 평가한다. 소현성, 앞의 2006 논문, 116면.

할 때 호굉이 간행한 『통서』를 저본으로 사용했는데, 이를 고려하면 호굉의 『통서』 간행은 도학 전통에서 주돈이의 문헌을 알리는 데 큰 영향을 미쳤음을 알 수 있다.

호굉의 주돈이에 대한 추존은 장식에게 그대로 이어진다. 주희는 건도 6년(1170)에 「태극도·설」에 대한 주해인 『태극해의』 초안을 작성하는데, 장식은 이에 계발을 받아 다음 해(1171)에 자신만의 「태극도설」 주해인 『태극도설해』를 만든다. 그리고 이를 수정한 후 건도 8년(1172)에 목판으로 새긴다.²⁸⁾

주희 당시에 『통서』는 이미 호상학과에 의해 널리 알려졌다고 볼 수 있다. 남송 紹興 연간(1131~1162)과 乾道 연간(1165~1173) 사이의 『통서』 형태를 보여주는 중요한 문헌으로, 중국 최초의 이학총서로 평가받는 『諸儒鳴道集』²⁹⁾에 실린 『濂溪通書』가 있다. 『염계통서』는 「태극도·설」이 수록되어 있지 않은 현존하는 最古의 『통서』 판본으로, 주희에 의해 『통서』가 정리되기 이전의 모습을 보여준다는 점에서 중요하다.³⁰⁾ 『제유명도집』은 북송 周敦頤, 張載, 二程, 司馬光에서부터 남송 張九成

27) 『晦庵集』 卷七十六, 「再定太極通書後序」, “長沙本既未及有所是正. 而通書乃因胡氏所定, 章次先後輒頗有所移易, 又刊去章目而別以‘周子曰’者加之, 皆非先生之舊.”

28) 주희는 『태극해의』 초안 작성 후 이를 계속 수정하여 건도 9년(1173)에 탈고한다. 장식의 『태극도설해』와 관련하여 蘇鉉盛, 「張栻哲學思想研究」, 北京大 博士學位論文, 2002 논문; 양주재, 「장식의 『太極圖說解』 및 그의 太極體性論」, 『퇴계학보』 134, 퇴계학연구원, 2013 논문 참조.

29) 현재 전해지는 『제유명도집』은 宋 理宗 端平 2년(1235)에 보수하여 인쇄한 것으로 초간본은 아니다. 초간본 연대와 관련하여 陳來의 경우 紹興 28년(1158)부터 乾道 4년(1168) 사이, 顧廷龍의 경우 孝宗 시기(1163~1189)로 여긴다. 반면 田智忠은 『제유명도집』에 실린 저작들이 건도 4년(1168) 전후로 더 새로운 善本들이 출현하는데, 『제유명도집』에는 이러한 판본이 반영되어 있지 않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초간본은 이러한 선본이 나오던 때보다 이른 시기여야 한다고 말하며, 종합적으로 볼 때 초간본은 건도 초년(1165) 이전에 간행된 것으로 추정한다. 田智忠, 『諸儒鳴道集研究-兼對前朱子時代道學發展的考察』, 中國社會科學出版社, 2012, 26~27면 참조. 『제유명도집』은 孔子文化大全編輯部編輯, 『諸儒鳴道(全2冊)』, 山東友誼書社出版, 1992 참조.

30) 『제유명도집』에 실린 『염계통서』(이하 ‘명도본’)는 현존하는 最古의 『통서』 판본으로서 주희가 간행한 ‘장사본’보다 이른 시기에 간행된 것으로 형태면에서 현행본과 약간의 차이를 보인다. 명도본은 그 속에 ‘一本’ ‘一作’ 등의 교감 흔적이 있는 것으로 볼 때 명도본의 편찬자는 『염계통서』를 편찬할 때 적어도 당시 유행하던 두 개 이상의 판본을 참고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태극도·설」을 수록하고 있지 않다는 점을 고려할 때, 이정 문화의 전수본 계통이 아닌 주돈이 구강고가본 계통으로 추정된다. 더불어 명도본은 주희가 보았던 호굉본과 양방의 구강고가본, 그리고 주희가 편정했던 장사본, 건안본, 남강본 등과 모두 무관하다. 다만 「태극도·설」이 없다는 점을 제외하면 건안본과 상당한 유사성을 보인다. 명도본과 관련하여 陳來, 「略論《諸儒鳴道集》」, 『北京大學學報: 哲學社會科學版』, 1986(01), 北京大學, 1986; 田智忠, 앞의 2012 책, 4~7면,

의 저작에 이르기까지 총 15종을 싣고 있는데, 『염계통서』는 그 가운데 가장 앞에 수록되어 있다. 『염계통서』가 『제유명도집』의 첫머리에 수록되었다는 점은, 주희 이전에 이미 주돈이가 이학자들에게 비중 있는 인물로 인식되고 있고 또 그의 『통서』가 도학의 필독서로 자리하고 있었음을 보여준다. 더불어 「태극도·설」이 없다는 점은 주희 이전에 도학의 필독서로 부각된 것은 「태극도·설」이 아닌 『통서』라는 사실을 말해준다.

Ⅲ. 도서학 전통에서 「태극도」의 부각

주돈이를 공맹 도통의 계승자로 여기고, 그가 이정에게 도를 전했다는 ‘주정수수’의 시각은 호굉에 의해 제시되었다. 하지만 호굉을 비롯한 호상학파에서 중시한 문헌은 주돈이의 『통서』로, 후대 주정수수의 핵심으로 여겨지는 「태극도·설」이 아니다. 그렇다면 주돈이의 「태극도·설」이 송대 문인들 사이에서 부각된 것은 주희로부터 말미암은 것인가. 그렇지 않다. 송대 사료를 검토해 볼 때, 주돈이의 「태극도·설」 역시 주희 이전에 이미 부각되고 있었다. 다만 그것은 도학 전통이 아닌 역학 전통에 서였다.

송대에는 우주의 생성과 변화의 원리를 역학 도상을 통해 표현하는 새로운 사조가 등장하기 시작하는데, 역학사에서는 이러한 풍조를 도서학이라 칭한다.³¹⁾ 북송 시기에 도상을 통해 역학적 우주론을 제시한 대표적인 인물로는 유목, 소옹, 주돈이를 들 수 있다. 그런데 북송 도서학의 흐름을 일별하여 유목, 소옹, 주돈이를 처음으로 거론한 인물이 바로 주진이다.

주진은 남송시기에 주돈이 저작을 처음으로 언급한 인물이다. 그는 비록 이정을 스승으로 여기면서 사랑좌와 긴밀히 교류하고 호안국, 윤돈 등과도 교류했지만 도학에 속하는 인물로 평가되지는 않는다. 그는 도학이 아닌 역학 방면에서 인정받은 인물로서, 황제에게 자신의 역학저술을 진상하면서 당대에 역학가로 널리 알려

228~231면 참조.

31) 주백곤 저, 김학권 외 역, 『역학철학사』 3, 소명출판, 2012, 15~19면.

졌다.³²⁾

주진은 紹興 甲寅년(소흥 4년, 1134)에 『주역집전』 9권, 『주역도』 3권, 『주역총설』 1권을 완성하고 이후 이 책들을 繕寫하여 소흥 5~6년에 고종에게 진상했다.³³⁾ 고종에게 올린 「한상역전표」에서 그는 유목(「하도」·「낙서」), 소옹(「선천도」), 주돈이(「태극도」)의 도서학 전통을 거론하고 이들이 모두 북송 도사 진단으로부터 말미암았다고 하였다.³⁴⁾ 「한상역전표」는 상수학의 입장에서 북송시대 역학 발전사를 설명한 것으로, 북송 도서학의 발전과정을 보여주는 중요한 자료로 평가받는다.³⁵⁾ 주진이 북송시대 상수역학의 흐름을 정립한 것은 일면 그 자신이 북송의 도서학 전통을 계승한 인물이라는 것을 제시하기 위해서라고 볼 수 있다.

주진은 『漢上易傳卦圖』에서 「하도」·「낙서」, 「선천도」, 「태극도」를 비롯하여 당대까지 전해지던 다양한 역학 도상을 수록하고 있다.³⁶⁾ 이 도상들은 주희가 정립하기

32) 주진과 사량좌, 호안국, 윤돈 등과의 관계에 대해서는 후외려 외 저, 박완식 역, 『송명이학사』 1, 이론과실천, 1993, 303~306면 참조. 이외 주진의 역학에 대한 내용은 다음의 연구를 참조할 만하다. 唐琳, 『朱震의易學視域』, 中國書店, 2007; 陳伯适, 『義理, 象數與圖書之兼綜: 朱震易學研究』, 文史哲出版社, 2011; 陶英娜, 「朱震易學哲學探微」, 山東大 博士學位論文, 2016.

33) 주진은 「한상역전표」에서 政和 丙申년(정화 6년, 1116년)에 시작하여 紹興 甲寅년(소흥 4년, 1134)에 완성하기까지 18년에 걸쳐 『주역집전』·『주역도』·『주역총설』을 저술했다고 말하고 있다. 그리고 이 13책을 繕寫해서 고종에게 올림을 밝히고 있다. 『漢上易傳』, 「漢上易傳表」, “造次不捨, 十有八年起, 政和丙申, 終紹興甲寅. 成『周易集傳』九卷, 『周易圖』三卷, 『周易叢說』一卷. …… 其書繕寫一十三冊, 謹隨狀上進, 以聞. 謹進.” 그런데 「漢上易傳表」에는 고종에게 진상한 구체적 시기가 기재되어 있지 않다. 이에 대해 소현성은 소흥 5년(1135)에, 唐琳(2007)과 陶英娜(2016)는 소흥 6년(1136)에 「漢上易傳表」를 고종에게 진상했다고 말하지만 모두 정확한 근거가 제시되어 있지 않다. 이 글에서는 잠정적으로 소흥 5~6년(1135~1136)으로 기술한다. 소현성, 앞의 2006 논문, 110면; 唐琳, 앞의 2007 책, 7면; 陶英娜, 앞의 2016 논문, 37면 참조.

34) 『漢上易傳』, 「漢上易傳表」, “漢上陳搏以「先天圖」傳種放, 放傳穆修, 修傳李之才, 之才傳邵雍. 放以「河圖」·「洛書」傳李溉, 溉傳許堅, 堅傳範諤昌, 諤昌傳劉牧. 修以「太極圖」傳周敦頤, 敦頤傳程頤程顥. 是時, 張載講學於二程邵雍之間. 故雍著『皇極經世』之書, 牧陳天地五十有五之數, 敦頤作『通書』, 程頤述『易傳』.”

35) 주진이 「한상역전표」에서 정이를 상수학의 전승 틀에 넣은 것은 사실에 부합하지 않지만, 진단으로부터 유목(「하도」·「낙서」), 소옹(「선천도」), 주돈이(「태극도」)까지 각각의 도서학의 전승 계통을 논한 것은 역학사에서 매우 중요하게 평가된다. 이와 관련하여 주백곤, 앞의 2012 책, 18~23면 참조.

36) 주진은 주돈이 문헌의 보급 측면에서 큰 의미를 지닌 인물이다. 주돈이 『통서』의 언급과 『한상역전표』에서의 「태극도」·「설」 수록은 주돈이 저작이 간행되지 않은 상태에서 반홍사의 「주돈이묘

이전의 「하도」·「낙서」, 「선천도」, 「태극도」의 형태를 보여준다는 점에서 중요한 사료들이다. 여기서 주진이 수록한 「태극도」와 관련해서는 앞서 살핀 기관의 말을 참조할 필요가 있다. 앞서 기관이 얻은 『통서』 필사본에는 세 가지 계통이 있었고, 그 가운데 하나가 ‘후사성-고원거-주진’ 계통이었음을 보았다. 이 계통의 『통서』는 ‘정이-윤돈’ 계통의 필사본과 마찬가지로 「태극도·설」이 『통서』 권말에 덧붙여진 형태이다. 따라서 주진이 『한상역전괘도』에 수록한 「태극도」는 본래 『통서』 권말에 덧붙여진 것으로 ‘후사성-고원거’를 통해 전해 받은 판본이라고 추정할 수 있다.

「한상역전표」에서 북송 도서학파의 인물로 유목, 소옹, 주돈이를 거론했던 것을 고려할 때, 주진은 당시의 다양한 역학 도상 가운데 유목의 「하도」·「낙서」, 소옹의 「선천도」, 그리고 주돈이의 「태극도」를 가장 중시했던 것으로 보인다. 이는 『한상역전괘도』의 편집체계를 통해서 드러난다. 이 책에는 다양한 역학 도상이 수록되어 있지만, 가장 처음에 「하도」·「낙서」가 수록되고, 두번째가 「선천도」, 그리고 그 다음에 「태극도」의 순서로 수록되어 있다. 이는 주진 당시에 중시되고 있었던 역학의 흐름을 반영한다고 할 수 있다.

주진은 『한상역전괘도』에서 주돈이의 「태극도」를 「하도」·「낙서」와 「복희팔괘도」·「문왕팔괘도」 다음에 배치하고,³⁷⁾ 「태극도」와 함께 「태극도설」 전문을 인용하면서 주돈이가 「태극도」(「태극도설」 포함)를 이정 형제에게 전수했다고 하였다.³⁸⁾ 이러한 「태극도」의 배치와 「태극도」 전승에 대한 주진의 언급은 매우 중요하다.

앞서 보았듯이 「태극도·설」은 『통서』의 부록처럼 덧붙여 전승되어 이정 문인들에게 그다지 부각되지 않았다. 「태극도·설」은 주진에 의해 처음으로 『통서』에서

지명」에 언급되었던 주돈이 저작의 내용을 확인시켜준 것이라 할 수 있다. 이 때문에 “『한상역전』 간행과 더불어 「태극도」와 「태극도설」 역시 함께 유포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된 것으로서, 주돈이 저작 및 사상의 확대라는 측면에서 볼 때 주목할 만한 부분”이라 평가받는다. 소현성, 앞의 2006 논문, 110면.

37) 『漢上易傳卦圖』에서는 가장 먼저 「河圖」·「洛書」를 배치하고 있다. 여기서 「하도」·「낙서」는 유목이 말한 하10낙9의 도식이다. 다음으로 「伏羲八卦圖」와 「文王八卦圖」를 배치하고 있다. 여기서 「伏羲八卦圖」는 현행 「복희64괘방원도」에 해당하는 그림이며, 「文王八卦圖」는 ‘3획괘’가 아닌 ‘6획괘’의 팔괘도이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 주돈이의 「태극도」를 수록하고 있다. 『漢上易傳卦圖』에 실린 이러한 그림은 주희에 의해 정리되기 이전의 「하도」·「낙서」, 「복희팔괘도」·「문왕팔괘도」, 「태극도」의 모습을 보여준다.

38) 『漢上易傳卦圖』, “右太極圖, 周敦實茂叔, 傳二程先生.”

분리·독립되어 역학 문헌에 수록되었다. 주진은 역학 도상들을 수집하기 위해 『통서』에서 「태극도·설」을 분리했던 것으로 추정되는데, 이는 「태극도·설」이 『통서』와 독립된 별도의 문헌이라는 인식을 갖게 한다는 점에서 중요하다. 나아가 주진은 주돈이가 「태극도」를 이정 형제에게 전수했다고 명시했다. 이는 그가 송대 상수역학의 계승 계보를 세우기 위해 제시한 것일 수 있지만, 사실 여부를 떠나 중요한 사항은 주돈이가 「태극도」를 이정 형제에게 전수했다는 내용이 처음으로 언급되었다는 점이다.

황제에게 진상했던 만큼 주진의 논의는 파급력이 크고 또 상당한 논란을 일으켰던 것으로 보인다. 앞서 호평이 「태극도」가 진단-충방-목수로부터 주돈이에게 전해졌다는 주진의 설을 인정하면서도 그들이 주돈이 사상에 큰 영향을 주지 않았다고 비판했던 점이 이를 증명한다. 『통서』는 당시 도학 전통에서 이미 중시되었지만, 「태극도」는 도서학 전통에서 상수 역학자인 주진에게서부터 역학적 우주론을 표현한 문헌으로 부각되었다. 다만 주진은 북송 도서학 전통에서 유목과 소용의 도상을 「태극도」보다 중시하고 있었다. 그런데 주진 이후에 「태극도」는 역학적 우주론을 논한 도상 가운데 가장 중요한 문헌으로 부각되기 시작한다. 그러한 위상 변화를 보여주는 문헌이 바로 楊甲의 『육경도』이다.

양갑은 乾道 2年(1166)에 進士가 된 인물로서 『육경도』를 저술했다. 『육경도』는 육경과 관련된 다양한 도상을 수집한 책으로, 현재 전해지는 책은 양갑이 紹興 연간(1131~1162)에 편찬한 저술을 毛邦翰이 건도 연간(1165~1173)에 增補한 것이다. 여기에는 乾道 元年(1165) 정월에 苗昌言이 쓴 서문이 실려 있고, 이후 『易』 『書』 『詩』 『周禮』 『禮記』 『春秋』 육경 각각에 관련된 수십 종의 그림이 실려 있다.³⁹⁾

『육경도』의 첫 번째 제1권은 역학과 관련된 그림을 수록하고 있다. 제1권의 기본 골격과 내용은 남송 중기 이후의 저술로서 송대 도서학의 주요 도상을 집록한 『大易象數鉤深圖』와 『周易圖』로 계승된다. 이 점에서 양갑의 『육경도』는 주진 이후 남송 도서학의 전통을 대변하는 핵심 저술이라 할 수 있다.⁴⁰⁾

39) 『四庫全書』, 『六經圖』, 「六經圖·提要」 참조. 이외 양갑과 모방한에 관한 간략한 정보는 쓰치다 겐지로, 앞의 2006 책, 202~203면 참조.

40) 세 문헌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陳睿宏, 『宋代圖書易學之重要輯著: 《大易象數鉤深圖》與《周易圖》—繫圖說析論』, 政大出版社, 2016, 21~58면 참조.

『육경도』 제1권에 보이는 그림의 순서를 보면, ‘易有太極圖’ ‘舊有此圖’ ‘乾知太始’ ‘坤作成物’ ‘天尊地卑’ ‘參天兩地圖’ ‘日月爲易’ ‘河圖數圖’ ‘洛書數圖’ ‘天地之數’ ‘六子圖’ ‘伏羲先天圖’ 등의 순서로 그림과 글이 실려 있다. 여기서 「태극도」와 「하도」·「낙서」, 「복희선천도」는 주진의 그림과 유사하며 주희의 그것과는 다르다는 점에서 주희 이전에 유행하던 도상들이라 할 수 있다. 여기서 주목할 점은 주돈이의 「태극도」가 『한상역전』에서는 「하도」·「낙서」와 「복희팔괘도」·「문왕팔괘도」 다음에 위치했던 것과 달리, 『육경도』에서는 가장 첫 번째에 배치되어 있다는 사실이다. 이는 『周易圖』와 『大易象數鉤深圖』에서도 마찬가지이다. 이러한 배치는 양갑 이후의 도서학 전통에서 주돈이의 「태극도」가 「하도」·「낙서」나 「복희선천도」·「문왕후천도」에 앞서는 지위와 위상을 확보했음을 알려준다. 즉 양갑 이전에는 역학적 우주론을 표현한 도상으로서 「하도」·「낙서」, 「선천도」가 「태극도」보다 중시되었지만, 양갑 이후에는 「태극도」가 그 위상을 대체했다고 할 수 있다.

한편, 양갑이 수록한 「태극도」는 주희보다는 주진의 그것과 형태가 유사하지만 약간의 차이를 지닌다.⁴¹⁾ 도상의 형태 차이는 양갑 당시까지 주돈이 「태극도」가 확정적이지 않은 불안정한 형태로 전해지고 있었음을 말해준다. 양갑이 수록한 「태극도」는 도설에서 특히 큰 차이를 보인다. 주진본과 주희본은 그림에 있어서는 차이를 보이지만, 도설에서는 약간의 글자 차이만 있을 뿐 기본적인 내용은 동일하다. 양갑이 수록한 도설은 글자 차이 외에 「태극도설」 전문 가운데 우주론을 말한 전반부만 싣고, 인성론과 수양론을 말한 ‘惟人也’ 이후의 후반부는 빠졌다는 특징을 보인다.⁴²⁾

41) 「易有太極圖」(이하 ‘양갑본’)는 ‘圖’와 ‘圖說’ 모두에서 주진이나 주희와 일정한 차이를 보인다. 양갑본의 ‘圖’는 ‘陰靜’·‘陽動’이 제2층 좌우에 배열되어 있는 주희의 「태극도」와 달리, ‘陰靜’이 오른쪽 1·2층 사이 ‘陽動’이 3·4층 사이에 있다는 점에서 기본적으로 주진과 유사하다. 하지만 양갑본의 ‘圖’는 제2층의 그림이 주진이나 주희처럼 흑백이 동일하게 교차되어 있지 않다는 점에서 차이를 보인다. 부록 참조.

42) 양갑이 수록한 「태극도설」은 다음과 같다. 『六經圖』 卷一, “右太極圖, 周敦實茂叔傳二程先生. 茂叔曰, 無極而太極, 太極動而生陽, 動極而靜, 靜極復動, 一動一靜, 互爲其根. 分陰分陽, 兩儀立焉. 陽變陰合, 而生水火木金土. 五氣順布, 四時行焉. 五行一陰陽也, 陰陽一太極也, 太極本無極也. 五行之生也, 各一其性, 無極之眞, 二五之精, 妙合而凝. 乾道成男, 坤道成女, 三氣交感, 化生萬物, 萬物生生而變化無窮焉.” 양갑의 글을 주진이 수록한 「태극도설」과 비교하면 “太極動而生, 陽動極而靜, 靜極復動” 구절은 “太極動而生, 陽動極而靜, 靜極復動”으로 축약되어 있고, “二氣交感”은 “三氣交感”으로 잘못된 글자도 있는 등의 차이가 있다. 하지만 가장 큰 차이는 전반부만 수록하고, “惟人也. …… 大哉易也. 斯其至矣.”의 후반부는 수록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이는 양갑으로 대표되는 당시 도서학 전통에서 「태극도」를 우주론과 관련된 내용이라고 인식했음을 보여준다.

이상에서 주돈이 「태극도」는 주희 이전에 주진과 양갑으로 대표되는 남송 도서학 전통에서 이미 부각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태극도」는 주진에게서부터 『통서』에서 독립되어 역학적 우주론을 서술한 독자적인 문헌이자, 주돈이가 이정에게 전수한 것으로 인정되었다. 그리고 역학적 우주론을 논한 문헌 가운데 「태극도」는 주진에게서는 「하도」·「낙서」, 「선천도」 다음의 위상을 차지했지만, 양갑에 이르러서는 첫 번째에 해당하는 가장 핵심 문헌이라는 위상을 차지하게 되었다.

IV. 주희의 종합

주희 이전에 주돈이는 호상학과에서 공맹 도통의 전승자로서 부각되었고, 「태극도」는 남송 도서학 전통에서 독립적인 문헌으로서 주돈이가 이정에게 전한 것으로 여겨지고, 역학적 우주론을 기술한 가장 중요한 문헌으로 부각되었다. 도학의 도통론 그리고 주정수수와 관련하여 이상의 내용은 이제 주희에 의해 하나의 맥락으로 엮여지고 관련 내용이 더욱 보강된다.

주희는 20대 때부터 60대에 이르기까지 주돈이의 「태극도·설」과 『통서』에 관심을 기울이며, 두 문헌을 교정·교감하는 한편 이에 대한 주해 작업을 진행하였다. 그 과정에서 『통서』와 「태극도·설」을 교정하여 간행한 것만 長沙本(1166), 建安本(1169), 南康本(1179) 세 종이 있다.⁴³⁾ 주희는 이 가운데 건안본과 남강본을 간행할

43) 장사본은 乾道 2年(1166, 37세)에 『통서』와 「태극도·설」을 교정하여 長沙에서 간행한 것이고, 건안본은 장사본 간행 3년 후 이른바 ‘주자정론’으로 말해지는 ‘中和新說’이 확립된 건도 5年(1169, 40세)에 『통서』와 「태극도·설」을 재교정하여 건안에서 간행한 것이다. 주희는 이듬해 건도 6年(1170)에 『태극해의』 초고를 작성하고, 장식·여조겸과의 토론과정을 거쳐 건도 9年(1173)에 『태극해의』 원고를 완성했다. 남강본은 『태극해의』 초고 완성 6년 후인 순희 6年(1179, 50세)에 南康軍 지사로 임직할 때 『통서』와 「태극도·설」을 교정하고 남강군 군학에서 간행한 것이다. 주희는 이후 순희 14年(1187)에 『통서』에 대한 주해를 완성하고 「周子通書後記」를 남기고, 이듬해인 순희 15年(1188)에 「태극도·설」과 「서명」에 대한 해설인 『태극해의』와 『서명해』를 학자들에 게 보여주고 「題太極西銘解後」를 지었다. 이대승, 「송대 도서학과 주자역학」, 한국학중앙연구원

때 각각 후기인 「周子太極通書後序」와 「再定太極通書後序」를 남겼다.⁴⁴⁾ 주희의 세 종의 판본은 형태와 내용 면에서 일정한 차이가 있다. 이는 주돈이 문헌과 사상에 대한 주희의 시각의 변화 과정을 보여주는데, 그 내용은 두 편의 후서를 통해 살필 수 있다.⁴⁵⁾

주희가 최초로 간행한 『통서』 판본은 장사본이다. 「주자태극통서후서」를 살펴보면,⁴⁶⁾ 주희는 장사본을 편정할 때 호굉이 정리한 『통서』(이하 ‘호굉본’)를 저본으로 삼고 春陵, 零陵, 九江 등에 전해지던 여러 판본을 대조본으로 참조하였다.⁴⁷⁾ 장사본을 비롯하여 주희가 당시 보았던 판본들은 「태극도·설」이 『통서』 마지막에 덧붙여져 있었고, 또 주희의 건안본과 남경본 후기에 「태극도」에 대한 언급이 없는 것을 볼 때, 장사본 편정 당시 교감·교정 작업은 『통서』뿐 아니라 「태극도·설」에 대해서도 이루어졌을 것으로 추정된다. 장사본은 당시 전해지던 여러 판본을 비교하여 정리하였기에, 주희의 작업은 교감과 교정이라는 문헌학적 측면에서 큰 의미를 지닌다. 그의 작업은 당시 여러 판본에 보이는 불확정적인 면모를 정리하여 안정적으로 유통시킬 수 있는 『통서』(「태극도·설」 포함) 판본을 제시했다고 할 수 있다.

주희는 여러 판본을 참고하여 편집·교정하였기 때문에 자신의 장사본이 다른 판본에 비해 자세하고 세밀하다고 자부하였다. 하지만 그는 장사본 역시 미진하다고 여겼다.⁴⁸⁾ 그 이유는 장사본이 “篇章은 본래 차례를 회복하지 못했고 分章의 제목도 삭제했으며, 별도로 ‘周子曰’이란 글자를 추가”하여 『통서』의 본래 형태가 아닌 데다

박사학위논문, 2019, 28~29면 참조.

44) 주희는 건도 5년(1169)에 건안본 간행 시 「周子太極通書後序」를, 순희 6년(1179)에 남강본 간행 시 「再定太極通書後序」를 남겼다. 주희는 이해 남강본을 간행하기 전에 ‘연평본’을 만들었지만 간행하지는 않았다. 대신 그는 ‘연평본’을 만든 내력을 글(「又(延平本)」)로 남겼다. 각각의 기록과 관련하여 東景南, 『朱熹年譜長編(上)』, 華東師範大學出版社, 2001, 412~3면, 626~9면; 상동, 『朱熹年譜長編(下)』, 871~872, 886면 참조.

45) 「周子太極通書後序」와 「再定太極通書後序」는 『晦庵集』(권75와 권76), 『周敦頤集』, 그리고 『元公周先生濂溪集』, 嶽麓書社, 2006 등에 실려 있다. 이 글에서는 『周敦頤集』 수록본을 참조했다.

46) 「周子太極通書後序」. 이하 「周子太極通書後序」는 『周敦頤集』, 43~45면 참조.

47) 호남 도주 春陵 출신인 주돈이는 관직의 대부분을 江西·湖南·四天·廣東 등지에서 역임했다. 주희는 교감작업을 위해 용릉, 구강 등과 같이 주돈이 연고지에서 전해지는 판본을 모았던 것으로 보인다. 용릉본, 영릉본, 구강본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소현성, 앞의 2006 논문, 123~4면 참조.

48) 「周子太極通書後序」, “右周子之書一編, 今春陵, 零陵, 九江皆有本, 而互有同異. 長沙本最後出, 乃熹所編定, 視他本最詳密矣. 然猶有所未盡也.”

각 장 제목을 제거하여 내용도 이해하기 어려웠던 호굉본을 저본으로 삼아 그 체재를 따랐기 때문이다. 또 『통서』 뒤에 덧붙인 銘, 碣, 詩, 文 등은 중복된 내용이 많고 주돈이의 道 역시 제대로 드러내지 못한 당시 판본들을 따랐기 때문이다.⁴⁹⁾ 하지만 가장 중요한 이유는 바로 장사본이 다른 판본들과 마찬가지로 「태극도·설」을 『통서』의 末章 혹은 부록 형태로 두었기 때문이다.

주희에 따르면, 주돈이 사상의 핵심이 온축된 것은 바로 「태극도」이다. 『통서』는 「태극도」의 깊은 의미를 밝힌 것으로, 「誠」, 「動靜」, 「理性命」 등이 그 도리를 잘 드러내고 있다. 이정 형제의 性命에 대한 언급 역시 「태극도」의 학설에 기인하며, 이는 그들의 「李仲通銘」, 「程邵公誌」, 「顏子好學論」 등을 통해 알 수 있다. 그래서 주돈이 친구였던 반홍사가 「주돈이묘지명」에서 주돈이 저술을 말할 때 특별히 「태극도」를 첫 번째로 언급⁵⁰⁾했다. 따라서 “이 「태극도」가 마땅히 책의 첫머리가 되어야 하는 것은 의심의 여지가 없다.” 그런데 「태극도」를 “주돈이가 손수 이정 형제에게 전수”하여 이정 형제가 『통서』 뒤에 붙인 뒤, 사람들이 「태극도」가 『통서』의 마지막 장이라 오해했고, 이 때문에 주돈이가 象을 세워 뜻을 다한 은미함이 어두워졌다. 못 판본에서 「태극도」를 『통서』 마지막에 붙인 것은 모두 잘못이다.⁵¹⁾

주돈이 사상의 핵심이 「태극도·설」에 있다고 여긴 주희는 「태극도·설」을 책의 첫머리에 둔 건안본을 간행한다. 호굉본 체재를 따랐던 장사본과 달리 간행본에서는 책의 순서와 각 장의 이름도 옛 형태를 회복한다. 또 반홍사의 「주돈이묘지명」과

49) 상동, “長沙通書因胡氏所傳, 篇章非復本次, 又削去分章之目, 而別以‘周子曰’者加之, 於書之大義雖若無所害, 然要非先生之舊, 亦有去其目而遂不可曉者, 如理性命章之類. 又諸本附載銘碣詩文事多重複, 亦或不能有所發明於先生之道.”

50) 주희가 「태극도」를 전면으로 내세운 이유 가운데 중요한 근거로 제시한 것은 반홍사가 말한 “太極圖易說易通”이다. (「주돈이묘지명」, “太極圖, 易說, 易通”. 『周敦頤集』, 91면.) 이 구절이 몇 개의 문헌을 지칭하는지에 대해서는 異見이 존재한다. 주희는 세 문헌(太極圖, 易說, 易通)으로 보지만, 구두를 달리하면 ‘太極圖易說’, ‘易通’ 두 책으로 볼 수도 있다. 다만 어느 경우이든 ‘태극도’가 가장 먼저 언급되었다는 점은 분명하다. “太極圖易說易通” 관련 논쟁은 鄭吉雄 앞의 2008 책, 184~187면 참조.

51) 「周子太極通書後序」, “蓋先生之學, 其妙具於太極一圖, 通書之言, 皆發此圖之蘊, 而程先生兄弟語及性命之際, 亦未嘗不因其說. 觀通書之誠, 動靜, 理性命等章及程氏書之李仲通銘, 程邵公誌, 顏子好學論等篇, 則可見矣. 故潘清逸誌先生之墓, 敘所著書, 特以作太極圖爲稱首. 然則此圖當爲書首不疑也. 然先生既手以授二程, 本因附書後, 祁寬居之云傳者見其如此, 遂誤以圖爲書之卒章, 不復釐正, 使先生立象盡意之微旨暗而不明, 而驟讀通書者, 亦復不知有所總攝. 此則諸本皆失之.”

蒲宗孟(1028~1093), 孔文仲(1033~1088), 黃庭堅(1045~ 1105) 등이 기록한 주돈이의 行事 기록에서 중복된 것은 제거하고 잘못된 것은 교정한 후 이를 합하여 별도의 독립적인 「事狀」을 만들었다.⁵²⁾ 그 과정에서 “개연히 뜻을 펴서 세상에 드러내려는 마음이 있었다”라는 포종맹의 말과 같이 고원한 도학자로서의 주돈이의 이미지를 해치는 말들은 사실이 아닌 것으로 보고 삭제했다.⁵³⁾

건안본에서 행한 주희의 작업은 두 가지 중요한 의의를 지닌다. 첫째, 「태극도·설」의 부각이다. 주희 당시 도학 전통에서 「태극도·설」은 『통서』의 말장의 형태로 서 크게 부각되지 않았으며, 심지어 「태극도·설」이 없는 판본 또한 존재했다. 그런데 주희는 「태극도·설」을 『통서』 앞에 배치하고 이에 대해 논변했는데, 이는 주돈이의 핵심 사상이 『통서』가 아닌 「태극도·설」에 있음을 명시한 것이다. 둘째, 도학자로서 주돈이 이미지 구축이다. 당시 전해지던 일부 『통서』에는 포종맹의 「주돈이묘지명」을 싣고 있는데 여기에는 인간적인 측면의 주돈이의 모습이 그려져 있다.⁵⁴⁾ 하지만 주희는 이러한 기록이 역사적 사실이 아니라고 보고 삭제했다. 이는 순수한 도학자로서의 주돈이의 이미지를 구축하기 위한 작업이라 할 수 있다.

첫째 의의와 관련하여 특기할 점은 주희가 수록한 「태극도」(이하 ‘주희본’)의 형태이다. 이는 앞서 주진이나 양갑의 그것(이하 ‘주진본’, ‘양갑본’)과 형태가 다르다.⁵⁵⁾ 장사본과 건안본 간행 이후 주희본 「태극도」는 일정한 논란을 일으킨다. 건도 7년(1171)에 주희가 호안국의 조카이자 호굉의 종제인 호상학파의 胡實(1136~1173)에

52) 상동, “故今特據潘誌置圖篇端, 以爲先生之精意. 則可以通乎書之說矣. 至於書之分章定次, 亦皆復其舊貫. 而取公及蒲左丞, 孔司封, 黃太史所記先生行事之實, 測去重複, 合爲一篇, 以便觀者. 蓋世所傳先生之書言行具此矣.”

53) 건안본의 반영사항은 「周子太極通書後序」뿐 아니라 「再定太極通書後序」에도 기술되어 있는데, 포종맹·공문중·황정건의 기록에 대한 교정·삭제 관련 사항은 후자에 상술되어 있다. 「再定太極通書後序」, “其大者如蒲礪云, ‘屠姦剪弊如快刀健斧’, 而潘誌云, ‘精密嚴恕, 務盡道理’. 蒲礪但云 ‘母未葬’, 而潘公所爲鄭夫人誌乃爲水齧其墓而改葬. 若此之類, 皆從潘誌. 而蒲礪又云, ‘慨然欲有所施以見於世’, 又云‘益思以奇自名’, 又云‘朝廷躡等見用, 奮發感厲’, 皆非知先生者之言. 又載先生稱頌新政, 反覆數十言, 恐亦非實. 若此之類, 皆削去.” 이하 「再定太極通書後序」는 『周敦頤集』, 45~48면 참조.

54) 蒲宗孟의 「周敦頤墓碣銘」은 『周敦頤集』, 92~95면 참조. 포종맹의 「周敦頤墓碣銘」에 보이는 인간적인 측면의 주돈이의 모습과 관련하여 소현성, 「주돈이 사상의 이해를 위한 몇가지 단서」, 『동양철학연구』 54, 동양철학연구회, 2008, 179~192면 참조.

55) 주진본, 양갑본, 주희본 「태극도」 그림은 부록 참조.

게 보낸 편지글에는 그러한 논쟁 내용이 잘 나타나 있다.⁵⁶⁾ 편지글에서 주희는 호실이 제시한 그림이 잘못되었다고 비판하는데, 그 핵심은 호실이 제시한 「태극도」의 ‘음정’과 ‘양동’의 위치이다. 현행하는 주희본 「태극도」는 ‘음정’과 ‘양동’이 제2권 좌우에 위치한 반면, 주진본·양갑본은 ‘음정’은 제1·2권 사이에, ‘양동’은 제2권 아래에 위치한다. 호실이 제시한 「태극도」는 양갑본이나 주진본에 가깝다. 주희는 장사본·건안본을 만들 때 다양한 판본의 차이를 살폈다고 하였는데, 이를 믿는다면 주희는 자의적으로 「태극도」 형태를 변경하지 않고 여러 판본의 차이를 교감·정리했다. 하지만 이러한 교감·정리에는 분명 주희 자신의 철학적 입장이 반영되었다고 할 수 있다.⁵⁷⁾

주희는 건안본이 간행된 건도 5년(1169, 40세)에 ‘中和新說’을 확립하여 「已發未發說」을 지었다. 여기서 그는 ‘무극이태극’이 미발로서의 ‘성’을 가리킨다고 말하고 있어, 「태극도·설」이 주희 자신의 ‘중화신설’ 확립과 밀접한 연관관계가 있음을 짐작케 한다. 주희는 이듬해 건도 6년(1170)에 「태극도·설」에 대한 해설서인 『태극해의』(「태극도해」·「태극도설해」) 초고를 작성하고, 장식·여조겸 등과의 토론과 수정 과정을 거쳐 건도 9년(1173)에 기본적인 원고를 완성했다. 「이발미발설」에서는 심성론적 측면에서 「태극도설」을 논한 반면, 『태극해의』에서는 본격적으로 우주론·본체론적 측면에서 「태극도설」을 논하고 있다.⁵⁸⁾ 이를 고려하면, 「태극도·설」을

56) 『晦庵集』 卷七十六, 「答胡廣仲」. 이하 「答胡廣仲」은 『周敦頤集』, 135~136면 참조.

57) 주희는 호실이 말한 「태극도」 舊本이 ‘음정’과 ‘양동’의 위치, 제2층 그림에서 흰색 속에 검은색이 없는 것, 그리고 오행의 순서가 잘못되었다고 말하고 있다. 호실이 말한 「태극도」는 양갑의 『육경도』에 실린 그림과 유사하며, 이는 ‘음정’이 위에 ‘양동’이 아래에 있다는 점에서 주진본 계열에 속한다. 주희와 호실의 편지글에 보이는 「태극도」 형태의 구조와 사상 차이는 이대승, 앞의 2019 논문, 29~36면, 47~50면 참조.

58) 주희는 젊을 때 「태극도설」을 보고 스승 李侗과 함께 태극·음양의 문제를 토론했다. 하지만 당시 관심사는 「已發未發설」이었다. 이때 관심사는 「태극도설」로 「이발미발설」을 논증하는 것이지 「태극도설」에 담긴 본체론적 사상이 아니었다. 건도 5년 己丑年(1169)에 지은 「已發未發說」에서 주희는 주돈이의 ‘무극이태극’은 性을 가리킨다고 했는데, 이는 그가 아직 「태극도설」의 본체론에 관심을 두지 않았음을 의미한다. 주희가 본체론으로서 리기관계를 밝힌 것은 『太極解義』이다. 『태극해의』 초고는 건도 6년(1170)에 쓰였고, 이후 장식·여조겸 등과의 토론과 수정 과정을 통해 건도 9년(1173)에 기본적인 원고가 완성되었다. 주희는 「태극도설」에서 태극을 ‘형이상의 도’이자 ‘동정음양의 리’라며, 리로써 태극의 의미를 명확히 규정하기 시작한다. 이와 관련하여 진래, 앞의 2002 책, 29~32면 참조.

주돈이 사유의 핵심으로 보고 이를 『통서』 앞에 배치한 건안본은 주희의 이기본체론 구축의 전초를 마련한 작업이었다고도 평가할 수 있다.

주희는 건안본에서 「태극도」를 부각시키고 세속적인 면모를 벗어난 고원한 도학자로서의 주돈이 이미지를 구축했다. 사실 「태극도」의 부각과 도학자로서 주돈이 이미지 구축은 이미 호굉과 주진에 의해 선행된 작업이다. 주진에 의해 「태극도」는 독립적 저술로서 주돈이가 이정 형제에게 전수한 것으로 여겨졌고, 호굉에 의해 주돈이는 ‘전해지지 않은 오묘함’을 이정 형제에게 전하여 이들은 공자와 맹자의 관계와 같다고 여겨졌다. 건안본은 주진과 호굉 양자의 설을 종합적으로 수용한 것이다. 하지만 건안본은 이들의 설에 대한 비판이기도 하다.

「태극도·설」의 사유는 이기철학과 밀접하게 관련되기에 주희는 「태극도·설」을 중심으로 주돈이 문헌을 재편한다. 그래서 주희는 건안본에서 호굉본의 체재를 따르지 않고 본래 『통서』의 형태로 여겨지는 체재를 복원하는 한편 「태극도」를 전면에 내세우고, 건안본 「후서」에서 「태극도」에 대한 주진의 ‘진단-충방-목수-주돈이’ 전승 설을 비판하며 이는 주돈이의 저술이라고 주장한다.⁵⁹⁾ 주희는 건안본에서 양자의 견해를 비판적으로 수용하고 종합하여, 도학자 주돈이 사상의 핵심은 「태극도·설」로서 도학 전통에서 주돈이가 이정 형제에게 전한 것은 바로 「태극도·설」이라는 주장을 명확하게 제시한 것이다. 「태극도·설」을 선창하고 고원한 도학자로서의 주돈이 이미지를 구축한 건안본 작업은 남강본에서 더욱 강화된다.

주희는 당대에 간행된 주돈이의 문헌들은 모두 오류가 있고 자신이 교정한 장사본과 건안본만이 온전하다고 보면서도, 이 역시 미진하다고 여겼다.⁶⁰⁾ 이에 주희는 순희 6년(1179)에 「태극도·설」 1편과 『통서』 40장 그리고 세상에 전해지는 舊本の 「遺文」 9편, 「遺事」 15조, 「事狀」 1편으로 이루어진 남강본을 간행한다.⁶¹⁾

59) 「周子太極通書後序」, “熹又嘗讀朱內翰震進易說表, 謂此圖之傳, 自陳搏, 種放, 穆修而來. 而五峰胡公仁仲作通書序, 又謂先生非止爲種, 穆之學者, 此特其學之一師耳, 非其至者也. 夫以先生之學之妙不出此圖, 以爲得之於人, 則決非種, 穆所及. 以爲非其至者, 則先生之學又何以加於此圖哉? 是以嘗竊疑之. 及得誌文考之, 然後知其果先生之所自作, 而非有所受於人者. 公蓋皆未見此誌而云云耳.”

60) 「再定太極通書後序」, “先生之書近歲以來其傳既益廣矣, 然皆不能無謬誤, 唯長沙建安板本爲庶幾焉, 而猶頗有所未盡也.”

61) 상동, “右周子太極圖并說一篇, 通書四十章, 世傳舊本遺文九篇, 遺事十五條, 事狀一篇.” 참고로 「通書四十章」은 『四庫全書』본 『晦庵集』에는 “通書四十一章”장으로 되어 있다. 하지만 현행본 『통서』는 총 40장이며, 『朱子全書』와 『元公朱先生濂溪集』 등에도 모두 ‘四十’으로 되어 있다.

주희의 남강본 간행 이유는 「재정태극통서후서」에 제시되어 있는데, 크게 네 가지 사항이다. 첫째, 주희는 楊方(자는 臨汀)의 구강고가본 『통서』(이하 ‘양방본’)를 얻은 후 기존 『太極·通書』(「태극도·설」·『통서』)⁶²⁾의 글자 일부가 오류임을 인식하였다.⁶³⁾ 그는 남강본 간행 이전에 저술만 하고 간행하지는 않은 ‘연평본’을 만든 것으로 보이는데, ‘양방본’을 얻은 후에 ‘연평본’과의 차이를 일종의 후기로 남겼다.⁶⁴⁾ 여기서 주희는 연평본과 양방본을 비교하여 19가지 차이를 말한다. 「태극도설」과 관련하여 주목할 사항은 양방본 첫 구절 “無極而生太極”에 대해 ‘生’자가 오류라고 봤다는 점이다.⁶⁵⁾⁶⁶⁾ 양방본 「태극도설」의 첫 구절은 ‘무극’에서 ‘태극’을 생성론적 구도로 기술한 판본이 있었음을 보여준다.⁶⁷⁾ 주희는 주진·양갑과 마찬가지로 「태극도설」 첫 구절을 “無極而太極”로 기술했는데, 이는 글자 교감에 따른 결과인 동시에 그

62) 주희는 「태극도·설」이 『통서』 앞에 놓인다는 의미에서 건안본과 이후 남강본을 지칭할 때 ‘太極通書’라 하고, 후서 서명을 각각 「周子太極通書後序」, 「再定太極通書後序」라 하였다.

63) 「再定太極通書後序」, “然後得臨汀楊方本以校, 而知其舛陋猶有未盡正者.”

64) 東景南에 따르면, 주희는 순희 6년 4월에 양방의 구강고가본을 얻어 이를 연평본과 비교하여 후기 혹은 발문인 「又(延平本)」을 남겼다. 「又(延平本)」은 『晦庵集』에는 수록되어 있지 않고 『元公周先生濂溪集』과 『周敦頤集』에 수록되어 있다. 東景南, 『朱熹年譜長編(上)』, 華東師範大學出版社, 2001, 626~7면; (宋)周敦頤 著, 『元公周先生濂溪集』, 麓書社, 2006, 75~76면; 『周敦頤集』, 50~51면 참조.

65) 「又(延平本)」에서 주희는 연평본과 양방본 사이에 19곳이 다른데, 2곳은 연평본의 오류로서 양방본을 따라야 하고, 14곳은 글자는 다르지만 뜻은 통하기에 그대로 놔둬야 하며, 3곳은 양방본의 오류로서 연평본에 따라 바로잡아야 한다고 말하고 있다. 그 중 양방본의 오류로서 “無極而生太極”을 지적하고 있다. 「又(延平本)」, “臨汀楊方得九江故家傳本, 校此本不同者十有九處, 然亦互有得失. 其兩條此本之誤, 當從九江本. 如理性命章云‘柔如之’(當作‘柔亦如之’). …… 其十四條義可兩通, 當並存之. 如誠幾德章云‘理曰禮’(‘理’一作‘履’). …… 其三條九江本誤, 而當以此本爲正. 如太極說云, ‘無極而太極’(而)下誤多一‘生’字.” 『周敦頤集』, 50~51면.

66) 양방본은 주돈이 구강고가본 가운데 「태극도설」이 있는 필사본이 있었다는 사실을 말해준다. 앞서 주돈이 구강고가본에는 「태극도」가 없다는 기관(「通書後跋」)의 말을 함께 고려해보면, 구강고가본은 「태극도」와 「태극도설」이 함께 전해지는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 등이 있을 수 있음을 짐작케 한다.

67) 순희 13년(1186)에 『四朝國史』를 진상했던 한림학사 洪邁(1123~1202, 景廬) 역시 「濂溪傳」에서 “自無極而爲太極”라며 ‘무극’과 ‘태극’을 생성론적 구도로 기술하였다. 주희는 순희 15년에 홍매를 만나 그가 편찬한 『四朝國史』 「濂溪傳」의 「태극도설」이 “自無極而爲太極”으로 되어 있음을 보고, 홍매가 근거 없이 ‘自’와 ‘爲’ 두 글자를 첨가했다며 「태극도설」의 첫 구절의 수정을 강력하게 주장하였다. 순희 15년(1188, 59세)에 쓴 주희의 「記濂溪傳」 참조. 『周敦頤集』, 89면.

자신의 철학적 입장에 따른 선택이기도 하다.

둘째, 何棄의 자료와 용례를 유람한 사람들의 말을 얻은 후 기존 「事狀」에 기술했던 ‘濂溪’의 命名과 관련된 설이 잘못되었음을 인식하였다.⁶⁸⁾ 이는 주돈이 호인 ‘염계’와 관련한 자료를 더욱 추가한 것이다.

셋째, 주돈이와 관련하여 “마땅히 기록해야 할 것을 잘못하여 빠뜨린” 자료가 있다고 보았다.⁶⁹⁾ 이는 “공은 당시 매우 어렸음에도 옥과 같은 모습에 금과 같은 목소리를 지니고 태연하고 온화하면서도 깨끗하여 마을 사람들이 모두 경청했다”, “고원한 풍격과 원대한 지조로 티끌 같은 세상 밖에 뜻을 두어 늘 고결하게 살면서 멀리 은둔하려는 뜻이 있었다” 등과 같이 주로 고원하고 고결한 도학자로서 주돈이의 이미지를 강화시키는 사료들이다.⁷⁰⁾

넷째는 張詠(946~1015, 시호 忠定)의 글을 읽은 후 주진의 ‘진단-충방-목수-주돈이’ 전승설에 대한 논박이 부족했다는 인식이다.⁷¹⁾ 주희는 당시 진단에게 배웠다고 알려진 장영의 “公事에도 음양이 있다”는 설이 「태극도설」의 내용과 부합하는데, 이러한 설은 유래가 있다고 여겼다.⁷²⁾ 이는 주희 당시 주돈이의 「태극도·설」이 진단 그리고 장영에게 근거한 것이라는 소문을 염두에 둔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주희는 공사에 음양이 있다는 설은 주돈이에게 영향을 일부 줬을지라도, 마음으로 천지만물의 이치를 깨닫고 이를 처음으로 도상 형태로 만들어 그 신비함을 드러낸 이는 주돈이라고 주장했다.⁷³⁾ 주희는 음양설과 관련해서는 진단의 영향을 인정하면서도, 「태극도」와 관련해서는 주돈이 창작설을 분명하게 제기한 것이다.

남강본은 『태극·통서』(「태극도·설」·『통서』), 「사장」으로 구성된 건안본의 일부 오류를 수정하고, 이외 「유문」과 「유사」 등 주돈이 관련 사료를 보충했다. 이는

68) 「再定太極通書後序」, “又得何君營道詩序及諸嘗遊春陵者之言, 而知事狀所敘濂溪命名之說有失其本意者. …… 今按, 江州濂溪之西亦有石塘橋, 見於陳令舉廬山記, 疑亦先生所寓之名云.”

69) 상동, “覆校舊編, 而知筆削之際亦有當錄而誤遺之者.”

70) 상동, “如蒲礪自言初見先生于合州, 相語三日夜, 遺而歎曰: ‘世乃有斯人耶!’ 而孔文仲亦有祭文序先生洪州時事曰, ‘公時甚少, 玉色金聲, 從容和毅, 一府盡傾’之語. 蒲礪又稱其孤風遠操, 寓懷於塵埃之外, 常有高棲遐遁之意, 亦足以證其前所謂以奇自見等語之謬.”

71) 상동, “讀張忠定公語, 而知所論希夷種穆之傳, 亦有未盡其曲折者.”

72) 상동, “張忠定公賞從希夷學, 而其論公事之有陰陽頗與圖說意合. 竊疑是說之傳固有端緒.”

73) 상동, “至於先生, 然後得之於心, 而天地萬物之理, 鉅細幽明, 高下精粗, 無所不貫, 於是始爲此圖, 以發其秘爾.”

‘「태극도·설」, 『통서』, 기타 사료’라는 건안본의 구성체제를 유지하면서, 사료 검증
을 엄밀하게 하고 자료를 더욱 확충한 것이다. 하지만 이는 단순한 문헌 검증과 확충
작업이 아니다. 남강본은 『태극·통서』 추가 교감, ‘염계’ 관련 자료 추가, 주돈이
평판에 대한 사료 추가, 진단 전승설 반박 등을 위해 만들어졌다. 이는 「태극도·설」
을 주돈이 사상의 핵심으로 선창하고, 주돈이 이미지를 세속적인 면모를 벗어난 도학
자로 구축했던 건안본의 작업을 더욱 강화시키기 위함이다.

남강본 간행 사유 가운데 첫째 『태극·통서』의 교감, 특히 「태극도설」 첫 구절에
대한 교감은 주돈이 원의에 다가가려는 시도인 동시에 주희 자신의 철학적 입장의
반영이자 정당화 작업이다.⁷⁴⁾ 둘째와 셋째 주돈이 관련 사료 추가는, 주돈이의 모든
면모가 아닌 도학자로서의 이미지를 부각시키는 사료만을 선별하여 추가시킨 작업이
다. 넷째 「태극도」 진단 전승설 반박은 도통론과 관련하여 매우 중요한 사안이다.
도학자로서 주돈이가 이정에게 공맹의 도를 전수한 것이 바로 「태극도」라면, 「태극
도」가 도교로부터 전승되었다는 주진의 설은 도학의 도통론에 치명적이다. 이 때문에
주희는 음양설에 대해서는 진단 연관설을 인정하지만, 「태극도」에 대해서만은 주돈
이 창작설을 주장한다. 「태극도」 진단 전승설은 그 사실 여부를 명확히 알기 어렵다.
다만 사실 여부를 떠나 주돈이 창작설은 주희에게는 물려설 수 없는 지점이다.

주희는 장사본, 건안본, 그리고 남강본의 간행을 통해 「태극도·설」을 주돈이 사유
의 핵심으로 선창하고, 이 「태극도·설」을 통해 주돈이와 이정 형제간의 도통을 구축
하며, 도학자로서 주돈이 이미지를 부각시켰다. 「태극도·설」을 중심으로 주돈이
문헌을 편정한 주희의 작업은 일면 ‘이정 형제에게 「태극도·설」을 전한 도학의 개창
자 주돈이’라는 일종의 신화 구축 과정이었다고 할 수 있다.

V. 결론

일찍이 그레이엄은 “12세기에 이정 학파의 계승자들은 이전에 무시했던 주돈이에

74) 이후 주희는 순희 14년(1187)에 『통서』에 대한 주해를 완성하고 다음 해인 순희 15년(1188)에
「태극도·설」과 「서명」에 대한 해설인 『태극해의』와 『서명해』를 학자들에게 공개한다.

게 관심을 가진다. 주돈이와 이정의 사상을 조화시키는 일은 태극과 리를 동일시함으로써 주희에 의해 완성된다. 주돈이를 받아들이는 일은 11세기 사상가들 속에 포함된 그의 (사상적) 맥락을 떼어 냄과 동시에 그를 신유학 운동의 개창자로 취급하도록 했다. 이정이 유년시기 때 짧은 시간이나마 주돈이 문하에서 배웠고, 이정 학파는 오랫동안 장재가 이정으로부터 그의 사유를 빌려 온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때문에 주희가 신유학 학파의 모든 분파들이 궁극적으로 주돈이로부터 나왔다고 주장할 수 있게 된 것이다.”라고 말한 바 있다.⁷⁵⁾

그레이엄의 통찰은 중요하다. 이는 당대에 주희가 도학의 개창자로서 주돈이를 선창할 수 있는 맥락을 지적했기 때문이다. 다만 주돈이의 부각과 함께 중요한 점은 바로 그가 「태극도·설」을 제시했기 때문임을 간과해선 안된다. 주희가 주돈이를 선창한 까닭은 바로 그가 태극과 음양에 대해 논한 「태극도·설」을 저술했기 때문이다.

주희가 주돈이와 그의 「태극도·설」을 중시한 것은 널리 알려졌다. 하지만 주돈이와 그의 「태극도·설」이 부각되는 상세한 과정은 알려지지 않은 채, 단지 주희에 의해 부각되었다고 여겨져 왔다. 주희 이전의 사료를 검토해보면, 주돈이는 이미 호상학파에서 공맹의 계승자로서 주창되었고, 「태극도·설」은 도서학파에서 역학적 우주론의 핵심 문헌으로 부각되었다. 주희는 주돈이 문헌을 편정하고 장사본(1166), 건안본(1169), 그리고 남강본(1179)을 간행하는 작업을 통해 호상학파와 도서학 전통의 논의를 종합하여 주돈이와 그의 「태극도·설」을 선창했다.

주희의 작업은 세 측면에서 큰 의미를 지닌다. 첫째는 문헌학적 측면에서, 주희 이전에 그림과 문자 모두 불확정적으로 전해지던 주돈이의 문헌을 다양한 판본을 통해 교감·정리함으로써 이후 주돈이 문헌을 안정적으로 유통시킬 수 있게 하는 기반을 다졌다. 더불어 「태극도·설」을 독립적인 저술로서 『통서』 앞에 배치함으로써 주돈이 문헌에 대한 새로운 체제를 수립하고, 동시에 주희 이전에 도학 전통에서 『통서』를 중시하던 인식을 전환시켰다. 둘째는 내용 측면에서, 주희의 교감과 정리를 거친 「태극도」와 「태극도설」은 모두 일정 정도 주희의 관점이 반영되어 있다. 나아가 「태극도·설」은 주해서인 『태극해의』까지 발간되었기에, 주희 이후 주돈이 사유에 대한 이해는 기본적으로 주희의 사유를 통해 이해되었다. 셋째는 도학 전통의 측면에

75) A. C. 그레이엄, 앞의 2011 책, 303면.

서, 주희는 주돈이의 도학자적 측면을 부각시켜 주돈이가 도학 전통의 종주로 자리매김하는 데 큰 역할을 했다. 나아가 교감·교정의 과정에서 「태극도·설」을 그의 핵심 사유라고 말함으로써 「태극도·설」이 도학의 핵심 문헌으로 자리매김 되는 데 큰 역할을 하였다.

주희 당대와 그 이후의 도학전통 및 후대에 편찬된 주돈이 저술을 고찰할 때, 장사본(1166), 건안본(1169), 그리고 남강본(1179) 간행에 이르기까지 주희의 작업이 미친 결과는 당대 도학 전통에 큰 영향을 끼쳤다.

도학 전통 측면에서 주돈이는 확연히 도학의 종주로 자리매김 되고, 그의 「태극도·설」은 도학의 핵심을 밝힌 문헌으로 정립된다. 주희의 건안본은 건도 5년(1169, 40세)에 간행되었는데, 이는 이듬해인 건도 6년(1170)에 張栻(1133~1180)에 의해 嚴陵의 學宮에서 재차 간행된다. 『통서』(「태극도·설」 합본)를 간행하면서 쓴 발문에서 장식은 벗인 주희가 「태극도」를 『통서』의 첫머리에 놓고 ‘太極通書’라 하였음을 밝힌다. 그리고 그는 주돈이가 聖學이 끊어진 지 천여 년이 지난 후에 초연히 홀로 大易의 전함을 얻었다고 여기고, 또 그의 「태극도」는 바로 대역의 강령으로서 動靜이 하나의 근원임을 밝혀 우주의 끝없이 생성변화를 드러내었는데 유가에서 말한 天命 유행의 본체가 여기에 있다며 「태극도」의 내용을 극찬한다.⁷⁶⁾ 여기서 장식이 「태극도·설」을 주돈이 사유의 핵심이라고 본 것은 주희의 관점을 수용한 것이다. 또 장식은 주희와의 토론 과정을 통해 자신 역시 「태극도설」에 대한 주석서인 『태극해의』를 건도 7년(1171)에 저술하고 이듬해 목판으로 새긴다.⁷⁷⁾

주희는 건도 9년(1173)에 북송 이래 도학의 연원을 밝힌 『伊洛淵源錄』을 완성하고, 2년 후인 순희 2년(1175)에 여조검과 함께 道學에 들어가는 입문서인 『近思錄』을 편찬했다. 주돈이와 그의 「태극도·설」은 『이락연원록』과 『근사록』에서 모두 도학의 첫 번째 저술로 다뤄진다. 여조검 역시 도학 전통에서 주돈이와 「태극도·설」의

76) 「通書後跋」, “濂溪周先生通書, 友人朱熹元晦以太極圖列于篇首, 而題之曰太極通書. 栻刻之於嚴陵學宮, 以示多士. 嗟乎! 自聖學不明, 語道者不觀夫大全, …… 惟先生生乎千有餘載之後, 超然獨得夫大易之傳. 所謂太極圖乃其綱領也. 推明動靜之一源, 以見生化之不窮, 天命流行之體, 無乎不在.” 『周敦頤集』, 119~120면.

77) 주희와 장식의 「태극도설」 논쟁과 이로 말미암은 「태극도설」 해석은 송대 철학사에서 사상적으로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고 평가된다. 소현성, 앞의 2006 논문, 125면 참조. 한편 주희와 장식의 「태극도설」 논쟁과 장식의 『태극해의』 연구는 蘇鉉盛, 앞의 2002 논문, 99~117면 참조.

위상을 인정한 것이다. 또 이는 주돈이를 도학의 비조로서 위치 짓고 그의 「태극도·설」을 도학을 밝힌 핵심 저술로 자리 매김한 것으로, 도학 내에서 주돈이와 그의 「태극도·설」에 대한 정통성과 권위를 확정한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권위는 원대에 주자학이 관학이 된 이후 정통적인 관점이 된다.

주희는 소희 4년(계축, 1193년, 64세) 10월에 소주의 염계사당을 방문하고 「邵州州學濂溪先生祠記」를 작성한다. 여기서 그는 공맹의 도가 주돈이에 의해 온전히 드러났으며, 주돈이를 공맹의 도의 계승자로 확연히 공언하고, 도통론을 구축했다.⁷⁸⁾ 이듬해 소희 5년 12월에 창주 정사에서 도학의 성현들에게 고하는 글 「滄洲精舍告先聖文」에서 주희는 “천여 년이 지나서야 비로소 계승함이 있었으니, 염계선생과 이정선생이 주고받으신 것[周程授受]은 못 이치로되 하나의 근원이다.”⁷⁹⁾라고 하였다. 이는 공맹의 도가 주돈이에게 전수되고 이것이 이정에게 전해졌음을 공언한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주정수수’의 도가 자신에게 이어졌으며, 자신을 공맹 도통의 전승자로 공언했다.⁸⁰⁾

도통론 상에서 주희는 자신이 공맹의 도통, 주정수수의 도를 이었다고 자부했다. 그는 도학 전통에서 공맹, 주돈이, 이정, 그리고 자신으로 이어진 도통론을 제시한 것이다. 주희 말년에 ‘僞學’으로 박해받던 도학은 주희 사후에 다시 부활하여 추존된다. 공인된 역사 전통에서 주돈이는 도학의 종주로 인정받고 주희가 산정했던 “無極而太極”과 같은 구절은 주돈이 「태극도설」의 원의로서 인정된다.⁸¹⁾ 주돈이는 도학의 종주로서 남송 寧宗 嘉定 13년(1220)에 ‘元公’이라는 시호를 사사받고, 淳祐 원년

78) 『晦庵集』 권80, 「邵州州學濂溪先生祠記」, “竊獨惟念先生之學實得孔孟不傳之緒, 以授河南二程先生, 而道以大明. …… 乃更闢堂東一室, 特祀先生, 以致區區尊嚴道統之意.”, 朱熹 撰, 『朱子全書』 24, 上海古籍出版社, 安徽教育出版社, 2002, 3803면.

79) 『晦庵集』 권86, 「滄洲精舍告先聖文」, “千有餘年, 乃日有繼. 周程授受, 萬理一原.” 상동(『朱子全書』), 4050면.

80) 상동, “恭惟道統, 遠自義軒. 集厥大成, 允屬元聖. 述古垂訓, 萬世作程. 三千其徒, 化若時雨. 維顏曾氏, 傳得其宗. 逮思及興, 益以光大. 自時厥後, 口耳失真. 千有餘年, 乃日有繼. 周程授受, 萬理一原. 曰邵曰張, 爰及司馬. 學雖殊轍, 道則同歸. 俾我後人, 如夜復旦. 熹以凡陋, 少蒙義方. 中靡常師, 晚逢有道. 載鑽載仰, 雖未有聞, 賴天之靈, 幸無失墜.”

81) 주희 생존에 홍매에 의해 “自無極而爲太極”으로 기술됐던 『四朝國史』 「濂溪傳」의 기록은 이후 원대에 만들어진 『宋史』에서는 “無極而太極으로 변경된다. 이는 주희의 시각이 正史에 공식적으로 반영된 것이다.

(1241)에 理宗에 의해 汝南伯에 봉해지고 공자 묘당에 배향된다.⁸²⁾ 그리고 남송 度宗 연간(1265~1274)에 ‘元公’이라는 호칭이 들어간 주돈이 문집 『元公周先生濂溪集』이 간행된다.⁸³⁾ 호상학파의 주돈이 추존과 도서학파의 「태극도」 부각, 그리고 이를 종합하여 주돈이 신화를 구축한 주희의 작업은 여기서 공인된 것이다.

투고일: 2020.04.27

심사일: 2020.06.01

게재확정일: 2020.06.17

82) 소현성, 앞의 2006 논문, 131면.

83) 『元公周先生濂溪集』은 주돈이의 추존을 기념하기 위하여 당시 학자들이 수집한 주돈이 유문과 유사를 수록하고 이외 후대 학자들의 추모와 존숭의 글을 모아 편찬한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소현성, 앞의 2006 논문, 130~132면 참조. 『元公周先生濂溪集』은 (宋)周敦頤 著, 『元公周先生濂溪集』, 嶽麓書社, 2006 참조.

참고문헌

- 周敦頤 著, 『元公周先生濂溪集』, 嶽麓書社, 2006
_____, 『周敦頤集』, 中華書局, 2017
孔子文化大全編輯部編輯, 『諸儒鳴道(全2冊)』, 山東友誼書社出版, 1992
黎靖德 編, 『朱子語類』, 中華書局, 2007
朱熹 撰, 『朱子全書』, 上海古籍出版社, 安徽教育出版社, 2002
朱震, 『漢上易傳』, 九州出版社, 2016
『聖門事業圖』, 『漢上易傳』, 『六經圖』, 『晦庵集』, 『大易象數鉤深圖』(이상 『四庫全書』 수록본)
『周易圖』(『正統道藏』 수록본)
- 徐遠和 著, 손흥철 역, 『이정의 신유학』, 동과서, 2011
수징난 著, 김태완 역, 『주자평전』 상·하, 역사비평사, 2015
쓰치다 겐지로 著, 성현장 역, 『북송도학사』, 예문서원, 2006
주희 著, 곽신환·윤원현·추기연 역, 『태극해의』, 소명출판, 2009
周敦頤 著, 朱熹 주석, 권정안·김상래 역, 『通書解』, 청계, 2004
朱漢民 著, 朴英順 역, 鄭萬祚 監수, 『湖湘學派와 嶽麓書院』, 學古房, 2011
진래 著, 이종란 외 역, 『주희의 철학』, 예문서원, 2002
함현찬, 『주돈이: 성리학의 비조』, 성균관대학교출판부, 2007
호이트 탈란 著, 김병환 역, 『주희의 사유세계: 주자학의 패권』, 교육과학사, 2010
후외려 외 著, 박완식 역, 『송명이학사』 1, 이론과실천, 1993
A. C. 그레이엄 著, 이현선 역, 『정명도와 정이천의 철학』, 심산, 2011
Peter K. Bol 著, 김영민 역, 『역사 속의 성리학』, 예문서원, 2010
姜廣輝 主編, 『中國經學思想史』 第三卷, 中國社會科學出版社, 2010
郭彥, 『易圖講座』, 華夏出版社, 2007
唐琳, 『朱震의易學視域』, 中國書店, 2007
毛奇齡 撰, 鄭萬耕 點校, 『毛奇齡易著四種』, 中華書局, 2014
東景南, 『朱子大傳』, 福建教育出版社, 2000
_____, 『朱熹年譜長編』 上·下, 華東師範大學出版社, 2001
楊柱才, 『道學宗主-周敦頤哲學思想研究』, 人民出版社, 2005
李申, 『易圖考』, 北京大學出版社, 2000
田智忠, 『諸儒鳴道集研究-兼對前朱子時代道學發展的考察』, 中國社會科學出版社, 2012
鄭古雄, 『易圖象與易詮釋』, 華東師範大學出版社, 2008
陳來, 『朱子書信編年考證(增訂本)』, 三聯出版社, 2007

- 陳伯适, 『義理. 象數與圖書之兼綜: 朱震易學研究』, 文史哲出版社, 2011
- 陳榮捷, 『朱子門人』, 學生書局, 1982
- _____, 『朱子新探索』, 華東師範大學出版社, 2007
- 陳睿宏, 『宋代圖書易學之重要輯著: 《大易象數鉤深圖》與《周易圖》一繫圖說析論』, 政大出版社, 2016
- 김병환, 「太極圖 淵源 研究」, 『동양철학』 7, 한국동양철학회, 1996
- _____, 「주돈이의 삶과 사상에 미친 불교와 도가, 도교의 영향 연구」, 『중국학보』 60, 한국중국학회, 2009
- 김인규, 「『성학집요』에 나타난 율곡 이이의 도통관」, 『율곡학연구』 39, (사)율곡학회, 2019
- 소현성, 「주돈이 저작의 간행과 권위의 형성에 대한 문헌 해석학적 연구」, 『동양철학연구』 46, 동양철학연구회, 2006
- _____, 「宋刻本 『元公周先生濂溪集』一考」, 『中國學報』 56, 한국중국학회, 2007
- _____, 「주돈이 사상의 이해를 위한 몇가지 단서」, 『동양철학연구』 54, 동양철학연구회, 2008
- 양주재, 「장식의 『太極圖說解』 및 그의 太極體性論」, 『퇴계학보』 134, 퇴계학연구원, 2013
- 이대승, 「송대 도서학과 주자 역학」, 한국학중앙연구원 박사학위논문, 2019
- 임홍태, 「율곡 이이의 도통론과 도통의식-『성학집요』의 ‘성학도통’론을 중심으로」, 『한국철학논집』 18, 한국철학사연구회, 2006
- 지준호, 「주자문인의 도통의식」, 『동양철학연구』 35, 동양철학연구회, 2003
- 陶英娜, 「朱震易學哲學探微」, 山東大 博士學位論文, 2016
- 劉俊·李敬峰, 「尹焞心性思想闡微」, 『延安大學學報(社會科學版)』 37(1), 延安大學, 2015
- 蘇鉉盛, 「張栻哲學思想研究」, 北京大 博士學位論文, 2002
- 束景南, 「周敦頤《太極圖說》新考」, 『中國社會科學』 1988(02), 中國社會科學雜誌社, 1988
- 申蔚竹, 「周敦頤“理學宗主”形象的建構與演變」, 湖南大 碩士學位論文, 2017
- 易永卿, 「周敦頤對湖湘文化和湖南人才的影響」, 『湖南師範大學社會科學學報』 2016(06), 湖南師範大學, 2016
- 王巧生, 「侯仲良理學思想闡微」, 『中州學刊』 2013(09), 河南省社會科學院, 2013
- 王立新, 「胡安國與程門弟子」, 『湘潭大學學報(哲學社會科學版)』 28(1), 湘潭大學, 2004
- 田智忠·王海海, 「《太極圖》與《太極圖說》之關繫再考察」, 『周易研究』 2010(2), 中國周易學會, 2010
- 周建剛, 「張栻對周敦頤之學的繼承與發展」, 『求索』 2016(11), 湖南省社會科學院, 2016
- _____, 「周敦頤與湘學」, 『湖南科技學院學報』 2014(09), 湖南科技學院, 2014
- 陳來, 「略論《諸儒鳴道集》」, 『北京大學學報: 哲學社會科學版』 1986(01), 北京大學, 1986
- 陳安民·周欣, 「湖湘學派對周敦頤的推尊考論—以南宋時期濂溪祠記爲中心」, 『廣西師範大學學報』 51(04), 廣西師範大學, 2015

- 肖永明·申蔚竹, 「南末湖湘學派對周敦頤的推崇及其思想動因」, 『湖南社會科學』 2016(02), 湖南省社會科學界聯合會, 2016
- Adler, Joseph A, *Reconstructing the Confucian Dao Zhu Xi's Appropriation of Zhou Dunyi*, Albany SUNY Press, 2014
- Thomas Dongsob Ahn, *The way and the glory-a study of Zhou Dunyi shrines in the southern song (1127~1279)*, University of Oxford, 2019
- Van Ess, Hans, "The Compilation of the Works of the Ch'eng Brothers and its Significance for the Learning of the Right Way of the Southern Sung Period", *T'oung Pao* 90, 2004

The Formation of Zhou Dunyi Mythology, and Zhu Xi's Role — the Rise of Zhou Dunyi and *TaiJi Tu* in the Theory of Line of the Way

Lee, Dae-seung

This article is part of the Southern Song Intellectual History study related to the Theory of Line of the Way(道統論) by so-called Neo-Confucianism or the School of the Way(道學). This article examines the process of establishing the image of Zhou Dunyi as a Neo-Confucian scholar during the Southern Song period, and the status of his Diagram of the Supreme Ultimate.

Believing Zhou Dunyi as the heir to Confucius-Mencius, the view that he delivered the Way to two Cheng(二程) brother was presented by Hu Hong(胡宏) of School of Hu-Xiang. But the book that was important in the School of Hu-Xiang was not Zhou Dunyi's *Diagram of the Supreme Ultimate*(太極圖, *TaiJi Tu*), but *Comprehending the Book of Change*(通書, *Tong Shu*). The importance of *TaiJi Tu* as an independent literature separated from *Tong Shu* began with the tradition of Southern Song School of I-ching Diagrams. In this tradition, *TaiJi Tu* was highlighted as an independent document describing the theory of relating I-ching study cosmology, and as a literature passed down by Zhou Dunyi to two Chen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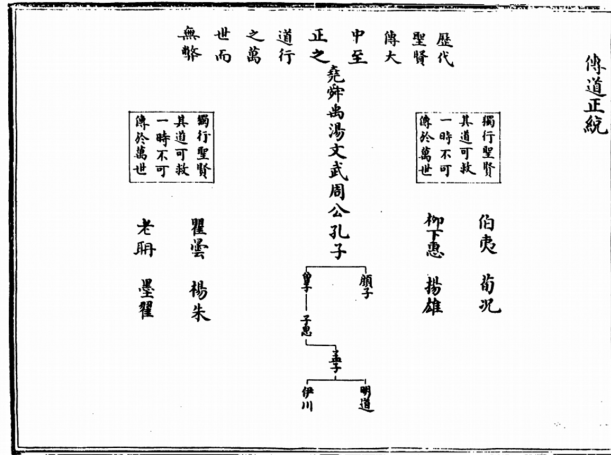
Zhu Xi arranged and compiled Zhou Dunyi's books and published Chang-sha's editions(長沙本, 1166), Jian-an's editions(建安本, 1169), and Nan-kang's editions(南康本, 1179). He synthesized the discussions of the School of Hu-Xiang and the School of I-ching Diagrams tradition in the process. He also preached *TaiJi Tu* as a key literature containing Zhou Dunyi's ideas. And through *TaiJi Tu*, he built a line of the Way between Zhou Dunyi and two Cheng brothers, highlighting Zhou Dunyi's image as a Neo-Confucian Scholar.

Through this process, Zhou Dunyi became the head of the school of the Way tradition, and his *Taiji Tu* was established as a document that revealed the core ideas of the School of the Way. And Zhu Xi's argument was recognized as an orthodox view after the Yuan Dynasty.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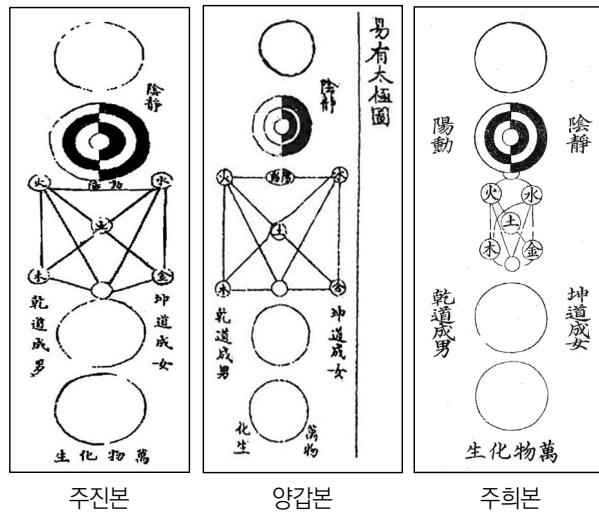
Key Words : Zhou Dunyi(周敦頤), Zhu Xi(朱熹), Theory of Line of the Way(道統論), *Diagram of the Supreme Ultimate*(太極圖, *TaiJi Tu*), School of Hu-Xiang(湖湘學), School of I-ching Diagrams(圖書學)

[부록]

- 『聖門事業圖』, 「傳道正統」⁸⁴⁾



- 주진, 양갑, 주희의 「태극도」⁸⁵⁾



84) 『四庫全書』 수록 『聖門事業圖』.

85) 주진본과 양갑본은 각각 『四庫全書』의 『漢上易傳』과 『六經圖』에 수록된 「태극도」이며, 주희본은 『孔子文化大全』판본 『性理大全』에 실린 「태극도」이다.